

윤석열 대통령, 해외 정상 최초로, 사우디 最古의 '킹사우드 대학교'서 강연

사우디아라비아 미래의 주인공인 킹사우드대 학생 2천여 명에게 변화와 혁신의 메시지 전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 시각 10.23, 월) 오전 사우디아라비아의 킹사우드 대학교에서 학생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청년, 미래를 이끄는 혁신의 주인공'이라는 주제로 연설하고, 학생들과 대화를 나눴다. 이번 강연에서 대통령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양국의 변화와 혁신의 주체인 청년의 역할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공동 발전에 기여할 청년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천 년 이상 이전부터 시작된 교류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1970년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특별한 동반자 관계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의 발판이 됐으며,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이끌어가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하고,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만들고 실천해가는 원동력은 미래세대인 청년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한국과 사우디의 우호 협력 관계는 양국의 학생과 전문가들이 활발히 교류하고 함께 연구할 때 더욱 깊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보다 많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청년들이 한국을 방문해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체험하며, 바이오, 메디컬 등 첨단분야를 비롯한 사우디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 있는 학생 가운데에서 역내와 세계의 평화를 진작하는 데 앞장서는 리더들이 배출되기를 바란다고 하며, 디지털 고도화 시대에 인류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할 기술의 진보에 기여하는 인재들이 탄생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청년들이 함께 협력하고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오늘 강연에 참석한 킹사우드대 학생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K-콘텐츠의 큰 인기와 한국이 최빈국에서 단기간에 역사적인 경제성장을 이룬 비결 및 미래지향적인 한-사우디 관계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킹사우드 대학교는 1957년에 설립한 사우디아라비아 최초의 대학이자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졸업한 학

교로, 오늘 강연은 대학 역사상 최초로 외국 정상으로서 한 강연이다. 오늘 강연에는 유스프 빈 압둘라 알 벤얀(Youssef bin Abdullah Al-Benyam)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 바드란 알 오마르(Badrhan Al-Omar) 총장 등 킹사우드대 교원들을 비롯해 킹사우드대 학생 2천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최광수/기자

경기도 김동연 지사, UN ESCAP 사무총장·말레이시아 장관 만나 협력 논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8회 아시아-태평양 도시포럼' 참석을 위해 방한한 해외 인사들과 잇달아 만나 경기도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24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유엔(UN) 산하기구인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아마다 살시아 엘리스자바나(Armda Salsiah Alisjahbana) 사무총장과 만나 "경기도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가장 적극적인 지방정부이고 여기에는 기업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며 "환경·사회·투명경영(ESG)을 통해 기업들이 더 활발하게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실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마다 살시아 엘리스자바나 사무총장은 "경기도와 수원시가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간 분야는 기후 행동을 앞당기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전략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엘리스자바나 사무총장의 경기도 방문은 김동연 지사 초청에 따른 것이다. 김 지사는 지난 7월 태국 방콕에 위치한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본부를 찾아 엘리스자바나 사무총장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김 지사는 당시 10월 한국 방

문 계획을 밝힌 엘리스자바나 사무총장에게 경기도 방문을 권유했었다.

이번 면담에는 송두근 삼성전자 부사장, 박호현 SK하이닉스 부사장, 임동아 네이버 이사, 오교선 샤프플러스(주) 대표이사 등 도내 대·중소기업의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책임자들도 동석해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관련 구체적인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유엔(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 지역위원회 중 하나로 62개 회원국이 참여해 아태 지역의 경제·사회 협력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연구, 정책 마련, 자문 등이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지속가능성, 기후변화 대응 등은 기업의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활동과 연관성이 높아 민간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김 지사와 엘리스자바나 사무총장의 만남은 이들 민간기업의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참여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해서다.

김 지사는 이어 데이비드 응아 코 밉(David Nga Kor Ming) 말레이시아 지방정부발전부 장관을 만나 경기도와 말레이시아의 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을 협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어 한국과의 전략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의 중심인 경기도와 말레이시아가 좋은 협력관계를 맺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응아 장관은 "지방정부발전부는 주택, 도시계획, 폐기물, 전당포, 대부업에 이르기까지 국민 밀착형 정책들을 담당한다. 경기도와 좋은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하며, 경기도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지방정부발전부는 지방정부 운영 지원, 국토종합계획, 주택공급 및 정책(스마트시티 등), 고형폐기물 관리 등을 담당하는 중앙부처로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와 스마트시티 구축, 한국환경공단과 지속가능한 폐기물처리 등을 협력 중이다.

이슬람 금융·할랄시장의 중심축이자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연결고리인 말레이시아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아세안(ASEAN) 3위의 아세안 경제 중심국으로 협력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도는 이번 만남으로 타 아세안 주요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류가 적던 말레이시아와 지방정부 운영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병상/기자

경북도, 수소전문기업 육성사업 간담회 개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 방향 논의

경북도는 24일 경상북도 동부청사에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전문기업 육성사업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기업 간담회에는 포스코플랜텍, 에프씨아이, 헵스, 투엔, 이너센서, 에너지엔퓨얼, 암페어머티리얼즈와 포항시, 구미시, 포항TP 등 관계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여 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경북도의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 7개사를 대상으로 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 방안 및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등 중간 성과와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참여기업들의 애로점과 의견을 청취했다.

현재 경북도에서 진행 중인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사업'은 올해 포항시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공고를 통해 선정된 7개 기업에 총사업비 5억 5천만 원을 지원하여 정부의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판로개척·컨설팅 지원을 통해 전략적으로 수소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소산업(생산·유통·충전)분야에 포스코플랜텍, 투엔, 에너지엔퓨얼, 암페어머티리얼즈와 수소응용(모빌리티·연료전지)분야에 에프씨아이, 헵스, 이너센서 등의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8월에는 헵스도 경상북도 최초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소전문기업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경북도는 나머지 6개 기업도 지속적으로 기술개발과 제품 경쟁력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장상길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경북도의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쟁력 강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면서, "경북도에서도 지역 중소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실적인 지원 정책을 발굴해 수소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전남도, 화순백신산업특구 특화분야로 '펩타이드' 육성

화순군·조선대와 함께 혁신신약 포럼... 연구개발 협약도



전라남도는 화순백신산업특구가 그동안 백신 분야에서 성장해온 경험을 기반으로 앞으로의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는 '펩타이드 혁신신약 포럼'이 지난 24일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개최했다.

포럼은 전남도와 화순군이 2021년 조선대학교와 함께 '펩타이드 기반 난치성 암 치료제 연구개발' 사업기획을 계기로 다양한 내외부 의견을 수렴해 백신과 면역치료제를 이어가는 화순백신산업특구의 차세대 특화분야로 '펩타이드'를 선정함에 따른 것이다. 펩타이드 포럼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산학연병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정기적 논의의 장이 될 전망이다. 펩타이드는 아미노산이 2~50개 정도가 연결된 물질이다. 생리활성을 가진 최소 단위의 펩타이드를 조합해 의약품이 개발된다. 대표 의약품으로 당뇨병 치료제로 사용되는 인슐린 제제가 있다. 부작용이 낮고, 상대적으로 쉽게 제조할 수 있어 합성신약에 비해 신약 성공률이 2배 높다.

2021년 기준 펩타이드 의약품 글로벌

시장규모는 48조 원이며, 2030년 100조 원 이상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산된다. 포럼에선 이근재 (주)메디티프 수석의 기초강연, 이윤식 비드테크 대표의 펩타이드 소재 신약의 대량생산 전략, 김양미 건국대학교 교수의 구조·활성 상관관계 기반 펩타이드 항생제 개발, 김홍기 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의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바이오센서와 생체모사 장기침의 역할 등 신약 개발뿐만 아니라 펩타이드를 활용한 질병진단 분야 활용 가능성 및 국내외 사례가 발표됐다.

이어 박기영 순천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강건욱 서울대학교 교수의 국내외 제약사 사례 중심의 펩타이드 신약개발 동향, 권형주 한림대학교 교수의 바이러스 질환 치료제로서의 펩타이드의 가능성, 박창환 한양대학교 교수의 3세대 바이오의약 분야인 줄기세포 분화 작용 조절 역할의 펩타이드 개발 현황, 박윤경 조선대학교 교수의 국내 펩타이드 신약개발 공백기술 분류 및 향후 과제 제시

등 펩타이드의 다양한 적용 분야와 확장성 등이 논의됐다.

박창환 전남도 정부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화순백신산업특구는 어려운 지방 여건에서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바이오신약 개발 전주기 기반시설을 구축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바이오기업 육성과 창업 진흥을 위해 펩타이드와 같은 첨단 신약 특화분야의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도, 화순군, 조선대학교는 펩타이드 혁신신약 연구개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했다. 조선대학교는 펩타이드 분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 연구기관으로 선정됐으며, 논문 250편을 발표하고 펩타이드 신약 유효성분 수백 종을 개발해 보유하고 있다. 앞으로 협약기관들은 화순백신산업특구를 중심으로 한 실무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사업기획 및 중장기적 정책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박종배/기자

경북도의회, 학생·학부모·지역민까지 행복한 교육 조례 눈에 확 띄네



경북도의회가 학교와 교육에 관한 조례를 통해 학생의 기초학력 신장은 물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과 자녀 안전에 대한 걱정을 더는 것에 더해 지역민에게 문화·체육·복지시설까지 제공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학습결손 및 기초학력 증진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에 '경상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 조례(대표발의 윤승오 의원)'를 제정했다.

조례는 매년 학년단위로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는 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했다.

조례에 따라 경북교육청은 지난 7월과 9월, 두 차례 초등 4학년부터 고교 1학년까지 기초학력진단검사를 통해 학습 부진요소를 파악하고 맞춤형 개별 보정지도를 시행하고 있다. 12월에는 3차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난독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등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도내 11개 전문기관과 함께 "학교로 찾아가는 난독 학습 치료"를 확대·시행하고 있다.

2022년 8월 기준 고등학생의 약 21%인 13,000여 명의 학생이 학교와 집의 거리 등으로 인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 3월 기준, 도내 고등학교 185개교 중 142개교(76.8%), 특수학교 8개교 중 6개교(75%), 각종학교 7개교(100%), 중학교 267개교 중 6개교(2.25%)가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161개 기숙사 중 36.6%인 59개 기숙사가 2000년 이전에 지어져 2세대의 성장환경과 차이가 많은 상황이다. 오래된 기숙사는 1인실보다 2인~8인까지 다인실이 많고 운동실, 휴게실, 샤워실 등 생활지원시설이 부족하고 양방향 온라인 학습실이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교육지원청이 아닌 학교장이 기숙사를 운영해 학교별 시설이나 운영에 차이가 크다.

도의회는 이런 기숙사 시설과 운영 개선을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대표발의 배진석 의원)'를 제정했다.

조례는 쾌적한 생활과 면학을 위해 교육감에게 기숙사 시설 및 주요비용

교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기숙사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연 2회 이상의 안전교육, 시설점검, 대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게 했다. 또한, 학부모와 학생의 기숙사 운영위원회 및 학생자치회 참여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고, 사감의 청소년 학생지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채용시 청소년 상담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매년 20시간 이상 청소년 지도학 등 관련 교육 이수 의무를 부여했다.

조례에 따라 경북교육청은 '2023년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기숙사 기본계획을 통해 학교장이 침실, 생활지원시설, 위생시설, 학습지원시설 등 기숙사

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2023년에 냉난방시설·화장실 보수 등 시설 개선비 277억여 원, 비품 교체비 10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화재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6년까지 도내 전체 기숙사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방역비를 지원해 학부모 부담을 낮추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기숙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해 학교를 지역 상생의 거점으로 학생 수 및 인구 감소로 학교와 지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지역에 필요한 문화·체육·복지시설을 학생과 지역민이 함께 이용해 공공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손희권 의원)'를 제정했다.

조례를 기초로 경북교육청이 작년 부터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추진한 결과 올해 9월 교육부 '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7개교가 선정됐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학교에는 주차장, 수영장, 체육관, 북카페, 돌봄시설, 도서관, 목욕탕 등의 복합시설화가 추진되며 사업비는 1,539억여 원에 달한다.

배한철 의원은 "학교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라며 "도의회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목소리를 경청하고 연구해 모두가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경상북도의회,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경영, 직무수행능력, 조직관리, 도덕성 등 철저한 검증 실시

경상북도의회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는 10월 23일 회의를 개최해 10월 31일 임기가 만료되는 경북테크노파크 하인성 원장의 1년 재임임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하인성 후보자는 최종 발언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당부하신 사항을 겸허히 받아드리고 경북테크노파크가 기업과의 소통을 좀 더 강화하여 지원기관의 성격을 넘어서 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조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업지원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인사청문위원회는 지난 9월 25일 시행된 '경상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11명과 의장추천 위원 3명 등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하인성 후보자에 대해 지난 3년여 간의 경영성과, 향후 직무수행계획, 도덕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으로 심도 있게 검증했다.

청문위원들은 하 후보자에 대해 경북 TP-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통합 관련 추진방향, 포함TP와의 협력 및 상생화 방안, 탄소중립에 대한 ESG 경영 전략, 종합청렴도 평가, 경북테크노파크 산하 특화센터 기능 및 역할 등을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특히, 테크노파크 부지 임대사유과 관련하여 영남대와의 불공정 계약이 지속되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촉구했으며, 기관장 평가는 S등급인 반면 기관 평가는 한 단계 하락한 A등급에 대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또한, 후보자 재직 기간 중 경북테크노파크의 수익계약 급증에 따른 용역계약 관련 지적에 대한 특단의 조치 및 최

근 3년간 지식재산권 출원 및 기술 이전 등의 실적이 저조한 것을 질타하며 경북의 주력산업 발전을 이끌어가는 핵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주문했다.

이춘우(영천) 위원장은 "경북테크노파크와 도의원과가 지역 발전을 위한 건교협 등 소통이 부족하다"며, "의원들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경북테크노파크의 현황 파악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 하 후보자가 재임임을 하게 되면 경북 산업 발전을 위해 그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부산시의회, 문화예술로 행복한 부산시민의 삶을 위해 팔 걷어

강철호의원, 문화예술교육정책이 문화도시 부산의 핵심이 되어야

지난 18일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강철호의원(행정문화위원회-동구1) 주제를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류기정 부산예술강사지원센터장, 조영미 문화와예술다다대표, 한영천 부전초등학교장, 최영 부산신문화재단, 최윤진 부산문화재단팀장, 박실연 부산시청 문화예술과장이 참석하여 부산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책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이 날 회의를 주재한 강철호의원이 먼저 현실의 개선상황에 대한 화두로 시작하자 참석자 전원이 거버넌스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상호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협의체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부산 문화예술교육의 전용 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이미 부산 곳곳에 예술가 및 예술가

강사의 노후가 담긴 좋은 프로그램이 많으며 이것을 아카이빙 해야 하는 공간과 사업의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학교문화예술교육을 가장 모범적으로 하는 부전초등학교의 한영천 교장선생님은 아이들이 어릴때부터 예술교육을 상시 프로그램으로 운영했을 경우 그 효과에 대하여 소개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우리사회에 문화예술의 가치가 확산되고, 문화예술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릴때부터의 경험이 중요하므로 생애 주기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예술교육을 참석자 전원은 강조했다.

한편 예술강사지원센터의 류기정 센터장은 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 지원이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으며 장기적 관점에서는 투자라고 표현해야 한다는 언급에 참석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강철호의원은 부산 오페라하우스,

부산 콘서트홀 개관 등 하드웨어 이슈가 많다.

그러나 이 곳에 내용을 채우고 다듬어 가는 것은 우리 시민이고 부



김희태/기자

서울시의회 임종국 의원, 지능정보과의존 예방사업 추진 촉구

디지털정책관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이자 스마트도시책임관

서울시의회 임종국 의원(민주당, 중로2)이 서울시 차원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능정보화기본법 제51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를 근거로 디지털 역기능 대응을 위해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기본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 추진해오고 있다.

각 시·도 교육청도 스마트기기 및 인공지능(AI) 프로그램 지급을 통해 코딩교육 등을 강화하고 있어 스마트기기 과의존 부작용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이에 임종국 의원은 서울시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디지털정책관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



으나 '현재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어 디지털정책관 소관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최광수/기자

대구시의회, 대구시 청년 일자리·주거정책 평가 및 개선방향 모색

10월 24일, 새시대희망포럼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새시대희망 포럼'은 10월 24일 오후 2시 의회 3층 회의실에서 소속단체 의원(대

표 황순자, 간사 이성오, 김대현, 전태선, 박우근, 이재숙, 하중환, 정일균, 김재용, 윤권근, 김정옥, 박소영, 박창석,

육정미)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시 청년일자리·주거정책 평가 및 개선방향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포럼은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로 청년, 인구, 저출산해소, 지역일자리 정책 등을 연구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14명의 의원으로 결성됐다.

이번 진행된 연구는 윤권근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달서구5)이 대표 제안해 한국정부학회(계명대학교 성영태, 최종민, 임태경 교수)가 지난 7월부터 대구시 청년일자리와 주거정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에 대해 연구를 수행해 왔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를 맡아 진행한 한국정부학회의 연구진과 시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윤근수/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대표이사: 박명인, 발행인: 최수진, 편집국장: 최재은, 부회장: 박유석, 임석경, 청소년책임보좌자: 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계호: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 02.2612.2959	정치부: 대선 (112)	문화부: 대선 (116)
광고국: 1899.9659	사회부: 대선 (113)	부동산부: 대선 (117)
	경제부: 대선 (114)	오피니언부: 대선 (118)
	스포츠부: 대선 (115)	지방부: 대선 (119)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카이벨리2차 708호

경기본사: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치는 덕으로 해야 한다”는 위정이덕(爲政以德)을 실천하려 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염종현 자치와 분권을 향한 기록’ 책 펴내

“민생중심 사람중심의 정치”를 해보겠다고, 오직 경기도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민생문제 해결과 삶의 질 향상이란, 한 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 10년이 넘는 세월을 달려왔다. 지금까지 제가 실천하고자 한 시대정신은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이고, 남북한 평화공존시대 유지에 기여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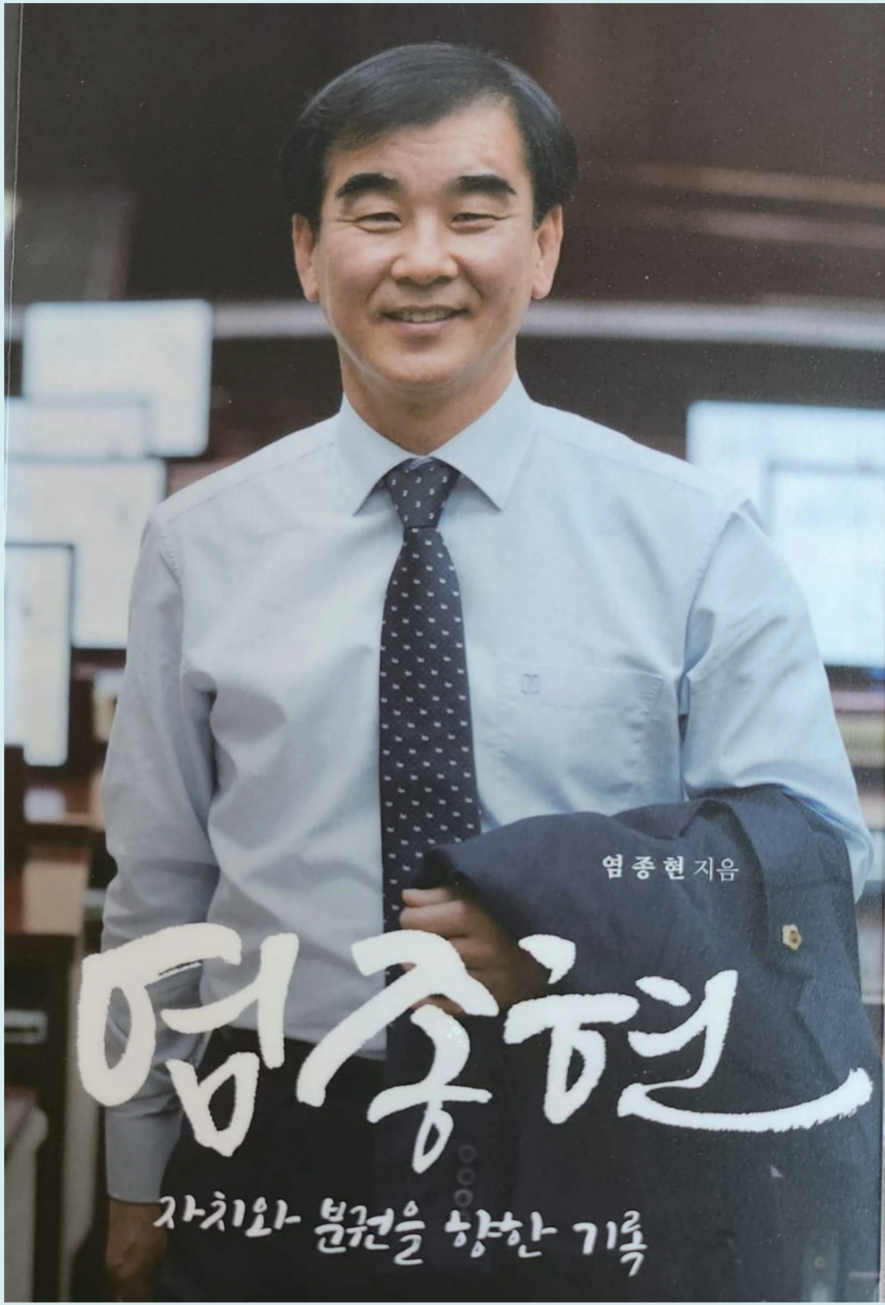
“정치는 덕으로 해야 한다”는 위정이덕(爲政以德)을 잊지 않고 10년 동안 자치와 분권을 향한 정치의 길을 걸어온 사람. 경청과 소통으로 공감의 정치를 실천하는 정치인이라는 말을 듣는 정치인, 부친 출신 4선 도의원인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그는 김대중 철학과 노무현의 행동이 고스란히 담긴 실천가다. 그는 우리 시대의 시대정신은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 남북한 평화공존 시대 유지라고 생각한다. 이는 그가 정치철학의 화두로 삼고 있는 명제다.

그가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여정을 ‘자치와 분권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의정 활동을 엮은 한 권의 책, ‘염종현 자치와 분권을 향한 기록’(염종현, TOP 폴리컴, 266페이지)을 생애 처음으로 세상에 내놓았다. 그리고 지난 10월 14일 부천대학교 본 캠퍼스 1층 더드림 카페(한길관)에서 극소수 지인들만 초대해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그의 책이 세상에 나올 예정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고 조촐하게 출판기념회가 진행됐다. 일반적으로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는 일부러 선거철을 골라 대대적이며 시끄럽기까지 할 정도로 성대하게 치러지지만 그의 책은 몇몇 지인들의 축하 속에 단촐하게 세상에 나왔다.

생애 첫 출판기념회였지만 대한민국 최대 광역의회 의장이자 4선의 경기도의원인 염종현 의장은 자신이 걸어온



염종현 지음

염종현

자치와 분권을 향한 기록

발걸음을 정리한 기록물을 내놓으면서 겸손하고 가볍게 세상과 인사했다.

책은 2개의 목차로 나눠 구성했는데, 먼저, △정치인, 염종현의 길과 협치에서는 노무현과 염종현의 특별

한 인연과 도의원으로 당선, 부천시 최초 경기도의회 의장이 되는 과정까지 담고 있다. 이어 △소통의 정치, 염종현의 의정활동에서는 언론이 본 염종현의 의정활동과 수상 내역 등을

엮었다.

그는 출간사에서 “말의 선천, 언어유희가 난무하는 시대에 한 권의 책을 내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망설여 지기도 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지방 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주시는 제8대~제11대 경기도의회 동료 의원님들께,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방 자치와 분권 강화, 남북한 평화 공존시대 유지하는 시대정신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염종현 의장은 부천노사모 초대 대표를 지냈고 2005년 1월 열린우리당 제1기 부천시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그리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2012년 4월 실시된 8대 경기도의원 부천시 제1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초선의원으로 본격 정치활동을 시작, 2014년과 2018, 2022년 내리 당선 4선의원으로 당내 입지를 다진 후 경기도의회 의장을 거머쥐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난 8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제11대 의회 전반기 남은 1년 간 ‘자치분권 3.0 시대’를 선도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자치분권 1.0’이 1991년 지방자치 재개와 더불어 시작됐다면 2020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자치분권 2.0’을 완성했고 이제 주민참여를 확대해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자치분권 3.0’이라는 슬로건에 담은 것이었다.

당시 연 의장은 경기도의회 자치와 분권의 실질적인 완성을 앞당기며 시민주권의 전당으로서 공헌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희망을 다짐하듯 밝혔다. ‘사람중심-민생중심 경기도의회’ 가치 아래 11대 의회 전반기 남은 1년의 가장 큰 과제로 ‘소통과 경청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농촌발전 위해 후계 여성농업인 육성해야”

2023년 생활개선 한마음대회 참석해 여성농업인 노고 격려하고 의견 청취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0월 24일 수원과학대학교 그랜드볼룸홀에서 열린 ‘2023년 생활개선 한마음대회’에 참석하여 농촌발전을 위해 한 해 동안 노력한 여성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 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는 김성남 위원장, 장대석 부위원장, 방성환 부위원장, 서광범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경기도에서는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이 참석했다.

대회에 참석한 김성남 위원장(포천2,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경기농업의 성공은 물론양면 노력한 여성농업인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하며 “농업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여성농업인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경기도의회에서도 후

계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작년 12월, ‘경기도 여성 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여 통과시키는 등 후계농업인 육성 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날 행사는 김영애 생활개선 경기도연합회장의 대회사로 시작되어 우수 여성농업 육성유공자들의 시상 등이 이어졌으며, 어울림 한마당과 작품전시 관람 순으로 이어졌다.

김범상/기자



경기도 예술인을 위한 모든 것을 한자리에, 'All in One Day, 경기예술인지원센터' 운영

지역문화재단(구리, 안양, 의정부)과 협력하여, 남/북부 예술인에게 찾아가는 행사

경기도 예술인을 위한 All in One Day 경기예술인지원센터

예술인 상담 DB등록 아카데미

일정 / 장소	상담	DB등록	아카데미
11.13(화) 안양아트센터	10시 ~ 16시		11시 예술인 경력개발 위한 '경력개발' 노하우 (서유경 변호사), △스토리텔링 콘텐츠가 살아있는 문화예술 홍보전략(김태욱 대표), △내가 먼저 즐거운 지원사업 기획을 위한 질문(주성진 문화기획자),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 문화예술의 미래를 만나다(김태연 연구소장)가 진행된다.
11.17(토) 의정부 예술의전당		DB등록 필수	11시 예술인 경력개발 위한 '경력개발' 노하우 (서유경 변호사), △스토리텔링 콘텐츠가 살아있는 문화예술 홍보전략 (김태욱 대표)
11.20(화) 구리아트홀			10시 내가 먼저 즐거운 지원사업 기획을 위한 질문 (주성진 문화기획자),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 문화예술의 미래를 만나다 (김태연 연구소장)

신청기간: 23.10.26 ~ 선착순 마감
대상: 경기도 거주 예술인(무궁)
문의: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팀 031-231-0958

신청장소: 경기문화재단 GGC홀(부) https://members.ggcf.kr/ *신청과 연계되는 다른 행사도 있습니다.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은 예술인의 지속 가능한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 ▲교육, ▲데이터베이스(DB) 등록을 모두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All in One Day, 경기예술인지원센터'를 운영한다. 11월 13일 안양아트센터, 11월 17일 의정부예술의전당, 11월 20일 구리아트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경기도 곳곳의 예술 현장을 찾아가고자 지역문화재단(구리, 안양, 의정

부)과 협력으로 진행된다.

▲ 예술인 상담에는 △법률, △심리(색채), △심리(그림), △예비게이션(예술+내비게이션: 창업), △일반 상담이 있다. 예술창작 활동 과정에서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예술인에서부터 불공정행위, 저작권, 법률문제를 겪고 있는 예술인, 공모·지원사업이 궁극하거나 예술활동 증명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 모두 일대일 상담(60분)을 무료

로 받을 수 있다.

▲ 예술인 교육은 건강한 예술 활동을 위해 알아야 할 강의 △예술인 정정당당 건강한 거래 경험 만들기 노하우(서유경 변호사), △스토리텔링 콘텐츠가 살아있는 문화예술 홍보전략(김태욱 대표), △내가 먼저 즐거운 지원사업 기획을 위한 질문(주성진 문화기획자),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 문화예술의 미래를 만나다(김태연 연구소장)가 진행된다.

▲ 예술인 데이터베이스(DB) 등록은 경기예술인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예술인 조사에 참여하고 예술인 DB에 등록하는 것이다. 21년에 조사를 시작하여 현재 약 6,600명의 예술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된 예술인은 누리집 내 포트폴리오 노출, 예술인 교류, 지원사업·행사 메일링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접근성이 어려운 예술인들을 위해 행사일 10시부터 16시까지 현장 조사원이 DB등록 절차를 도와주는 데스크를 운영한다.

상담 아카데미는 사전 예약 필수이며, 오는 10월 26일부터 지지씨멤버스로 선착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문화재단

이번 행사 외에도 경기예술인지원센터 누리집에서는 예술 활동·정보 '알리기', 동료·재료·공간 '나누기/구하기' 등 온라인 커뮤니티 페이지를 통해 상시로 예술인의 지속적인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한다. 알리고 나누고, 구하기만 해도 다양한 이벤트가 쏟아지니 눈여겨볼 만하다.

앞으로도 경기예술인지원센터는 예술 활동에 필수적인 창작 역량뿐만 아니라 예술인 간 교류, 고충해소 등 권익 보호와 생활에 필요한 주제로 예술인을 만나며 예술 생태계의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김범상/기자

박재용 경기도의원, 지역사회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을 위한 토론회 좌장 맡아

“박재용 의원, 경기섬유지원센터에서 열린 '지역사회 교통약자 이동편의 현실과 비전을 찾다!' 토론회의 좌장 맡아



경기도의회

경기도 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3일 서경대학교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경기섬유지원센터에서 공동 개최한 '지역사회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을 위한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종합계획',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중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 수원7), 정성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 오석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박성남 양주시 부시장, 한성민 양주시의회 부의장이 축사했으며, 이우연 디딤돌자립생활지원센터장, 엄태현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양주시지회장, 김복기 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 양주시지회장, 이한우 국립한국국립대학교 교장, 박태희 경기교통공사 교통사업부장, 이수호 경기도교통국 광역교통정책과 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자로 나선 이우연 센터장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정책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 정책이자 복지정책이며, 교육받을 권리, 일할 권리,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권리를 보

장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정책이라고 했다” 또한 “저상버스는 모든 교통약자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운행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엄태현 지회장은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 예산, 사업 지침 등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 부담금 제도가 있지만 이동권 확보가 선결되지 않으면 고용에 대한 의미가 퇴색한다고 했다.”

김복규 지회장은 “울퉁불퉁한 도로나 훼손된 도로로 인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하면서 “도로상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도로보수를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한우 교장은 “학교에서 장애 학생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수단을 마련하여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졸업 이후에 이동권이 확보되지 않아 사회생활에 지장 받을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면서 접근성 강화, 인식 개선, 교육 및 정보 접근성, 고용 기회와 사회 참여, 기술혁신 활용, 법률 및 규제 강화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태희 처장은 “경기도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를 개설하고 통합콜센터를 설치하여 광역이동서비스를 위한 신청 및 배차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있지만 시범운영 과정 중에 크고 작은 시행착오도 있다”라고 하면서 “장애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이수호 팀장은 “특별교통수단 확대, 대체 수단 확보, 교통약자 전용 DRT

도입, 전기 저상버스 확충, 교통약자 시설·설비 개선, 서비스 광역화와 스마트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애 당사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다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규정이 시장 또는 군수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있어 광역이동서비스 정책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장애인 당사자의 질의와 요구도 있었다. “북부지역의 경우 보행자 인도가 협소하고 장애물이 많아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방해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배차시스템에 AI를 활용하고 있는데 알고리즘에 문제가 있는지 현실과 너무 괴리된 배차가 이루어지고 있어 알고리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이동권 보장 혜택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보다 촘촘한 정책을 집행해달라”는 요청과 질의 등이 있었다.

좌장을 맡은 박재용 의원은 토론 내용을 정리하면서 장애인당사자 입장에서 이동권에 대한 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책 집행 과정에서도 이러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저상버스 확대 도입에 대한 요구가 많은데 도로의 과도한 방지막으로 인해 저상버스가 운행하기 곤란한 경우도 발생한다고 하면서 과속방지막을 대체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범상/기자

수원시, '탄소중립 국제컨퍼런스' 개최... 기후위기 대응방안 찾는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탄소중립을 위해 전 세계가 서로의 경험과 기술을 공유해야 한다"

도시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방안을 찾는 '수원시 탄소중립 국제컨퍼런스'가 2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비롯해 마틴 행켈만 한독상공회의소 대표, 남상민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환경개발국장, 클라우스 진스마이스터 E3 PLAN B CTO, 김익수 환경일보 대표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컨퍼런스는 남상민 UNESCAP 환경개발국장의 기조연설로 시작했다. 기조연설에서 남상민 국장은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도시의 탄소중립 실현 방안을 설명했다. 또 기후변화를 줄일 수 있는 정책, 탄소중립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박재현 아주대 박사가 수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집 탄소소



니터링 사업' ▲박철무 서남해안기업 도시개발 상무가 '솔라시도 사례(첨단-생태-에너지-관광 레저도시)' ▲클라우스 진스마이스터 E3 PLAN B CTO가 '유럽지역의 지속가능한 도시 사례' ▲UN ESCAP 소속 카니카 그로버가 '인도의 탄소중립 정책과 성과' ▲송영일 KEI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선임연구위원이 '기후변화 적응 추진방향' 등을 주제 발표했다.

'도시 탄소중립과 기후 위기 대응 방안 모색'을 주제로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김익수 환경일보 대표가 좌장을 맡고 김기은 교수(DLG Chair), 이한경 대표(에코엔파트너스), 오대군 교수(서울대), 김정인 교수(중앙대), UN ESCAP 소속 누르하미다(인도네시아), 마리아 아모르 필리핀 도시환경 및 천연자원과장이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기후 위기에 국경이 없듯 기후 행동에도 국경이 없다"며 "탄소중립을 위해 전 세계가 서로의 경험과 기술을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컨퍼런스에 함께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탄소중립의 문'을 열겠다"며 "함께 탄소중립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범삼/기자

정명근 화성시장,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에 환영

26일, 법무부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화성시는 26일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리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법무부 입법예고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지난해 10월 연세 성폭행범 박병화의 전입 직후부터 5만 명 국민의 청원을 시작으로 시민들과 함께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을 법무부에 강력히 요구해왔으며, 이번에 법무부가 받아들여 입법예고에 나섰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제시카법 입법예고는 강력 성범죄자의 거주 제한

을 위한 화성시와 시민들의 부단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생각한다"며, "법률안이 확정되어 공포될 때까지 법 제정 과정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성범죄자 거주시설 지정시, 일부 지역에 범죄자가 모이게 되어 그에 따른 지역적 편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고려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한국형 제시카법은 재범위험성이 높은 "악질적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거주지 제한명령이 부과 가능한 범으로,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3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로 한정한다.

26일부터 입법예고가 시작되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법률안이 마련되면 입법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양시현/기자

신상진 시장 '사람 중심의 4차산업특별도시 성남' 미래 청사진 제시

성남시정연구원 "성남 오늘의 50년, 내일의 50년" 세미나 개최



성남시는 24일 오후 1시 30분 성남 시청 3층 한누리에서 '성남 오늘의 50년, 내일의 50년'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7월 개최한 성남시정연구원이 성남시의 미래 비전 및

4차산업특별도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임종순 성남시정연구원장, 전문가 및 시민, 시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신상진 시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성

남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차원의 '4차산업특별도시, 성남'이라는 도시의 미래 성장 비전이 필요하다"며 "4차산업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혁신을 위한 인재와 기업들을 모으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신 시장은 차세대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바이오클러스터, 4차산업클러스터, 블록체인 및 메타버스특구,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스마트도시 조성, 메타시티 성남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 등 7대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종순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성남시정연구원이 성남시 발전을 위해 우수한 연구성과로 뒷받침 하겠으며, 이를 위해 연구원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 하겠으니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소진광 가천대학

교 명예교수(성남, 오늘의 50년: 성남 산업의 성장과정), 김도현 성균관대학교 교수(성남, 내일의 50년: 디지털 전환과 성남시), 김익성 성남시정연구원 연구위원('4차산업특별도시' 성남의 과제) 등이 주제발표 발표를 맡았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장윤종 KDI 초빙연구위원을 좌장으로 ▲이광용 네이버 정책전략 이사 ▲김서군 한국팜리스산업협회 사무총장 ▲권순범 성남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해 성남시 미래 방향성을 주제로 열린 토론을 벌였다. 이후 참석자간 자유토론을 통해 향후 성남시 및 시정연구원의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한편, 성남시정연구원은 성남시정전반의 현안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 최초로 지난 7월 3일 출범했다.

김범삼/기자

고양특례시, 찾아가는 발달장애인 건강관리 실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달장애인 15여명 참여



고양특례시가 10월 23일 관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에 찾아가 발달장애인 15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발달장애인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실시했다.

이날 △체성분 측정기 검사 △혈압·혈당 측정 및 건강 상담 △구강검진 및 구강관리 교육 등이 진행됐다.

장애인 보호자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경우 단순한 건강검진을 받는 것도 쉽지 않다. 발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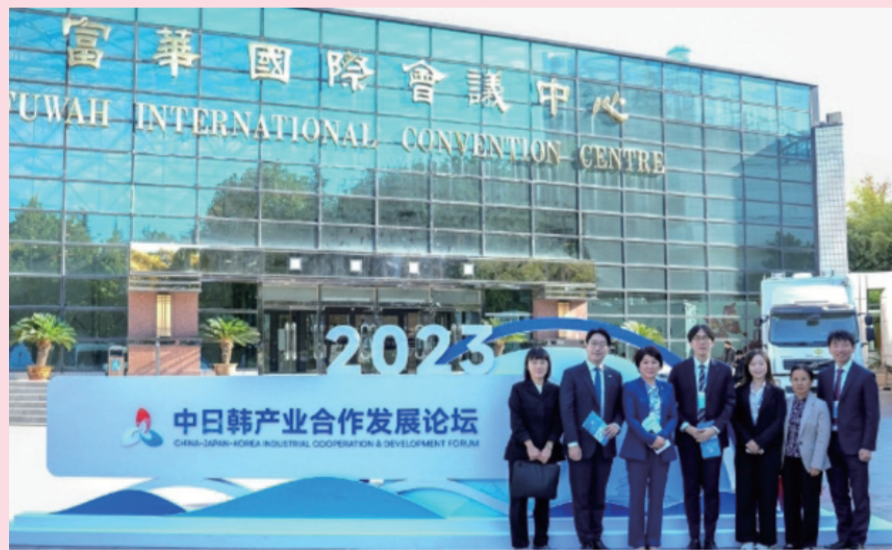
애인이 편안함을 느끼는 장소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인의 건강권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 9월 20일에도 복지시설에 찾아가는 발달장애인 건강관리를 실시한 바 있다.

한영기/기자

안양시의회 대표단, 중국 웨이팡시 및 제9회 한중일산업박람회 초청방문 "지방의회 공공외교 선도"



안양시의회는 최병일 의장을 단장으로 한 안양시의회 대표단이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자매도시인 중국 웨이팡시에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웨이팡시의 공식초청으로 이루어졌으며, 박동윤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도현 의원 등이 참여했다.

중국 웨이팡시는 산둥성 동부에 위치한 인구 942만의 중심도시로서, 산둥성 16개 도시 중에서 지난, 칭다오, 옌타이에 이어 네 번째로 큰 도시다. 1984년부터 전 세계 60여개국이 참여하는 '국제연날리기대회'를 개최하며 문화예술 국제도시로서 위상이 높다. 농업과 공업 생산성이 높으며, 지난 2021년 시진핑 주석이 농업혁신의 모범사례로서 '웨이팡 모델'을 제시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안양시와는 지난 1995년에 자매도시 협약을 체결했다. 대표단은 지난 20일 제9회 한중일

산업박람회 개막식, 2023 한중일산업협력발전포럼, 한중일지방정부협력 컨퍼런스 등에 참석했으며, 이날 행사에는 송진지 산둥성 부성장, 추귀홍 전 주한중국대사, 장사오강 산둥성 무역촉진위 부회장, 류원 웨이팡시 서기, 류젠진 웨이팡시 시장, 이희섭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사무총장, 홍창표 KOTRA 중국지역본부장, 중국 랑차오 그룹 부회장 등이 주요 내빈과 패널로 참여했다.

최병일 의장은 축사를 통해 "안양시와 웨이팡시는 지난 95년 자매결연 이후 공무원 인사고료는 물론, 문화, 예술, 산업 등 다방면에 걸쳐 상호교류를 이어왔다"라고 설명하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3국 지방정부의 교류가 더욱 가속화되고, 공동 번영과 발전을 위한 소중한 기회가 지속될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대표단은 웨이팡시 도시계획에 솔관을 참관하고, 양자우회 웨이팡시 인민대표회의 상무위 부주임과 환담했다. 23일에는 주칭다오총영사관을 방문해 김경한 총영사와 면담하며 지방정부 협력 및 공공외교 활성화에 대해 논의하고, KOTRA 칭다오무역관을 방문해 중국시장 개척 및 기업 지원 제도를 살피는 등 다양한 정책 사례를 청취했다.

이밖에도 최근 중국 MZ세대의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해양대학 대학로, 올림픽요센터 해상축구장 등에 벤치마킹을 나섰다.

이번 방문을 두고 김도현 의원은 "안양시는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공공외교 중심도시를 표방하는 만큼 해외도시와의 적극적 교류를 통해 향후 50년 성장의 비전을 찾아야 한다"라고 설명했고, 박동윤 의원은 "이번 방문을 통해 접한 산업, 기술,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모범사례를 깊이 있게 연구해 의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표단에는 최병일 의장을 비롯한 양당 대표, 총무경제위원 등이 포함됐으나, 지난 제287회 임시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 국민의 힘이 보이콧을 선언하며, 민주당 의원들만 중국 방문에 나서게 됐다.

신우용/기자



광명시가 지난 21일과 22일 양일간 광명시민체육관 일대에서 개최한 2023 페스티벌 광명이 누적 인원 약 6만 명이 참여한 가운데 화려한 막을 내렸다.

도시심 녹지공간에서 음악을 통해 일상에서 평화를 즐기는 축제로 기획된 2023 페스티벌 광명은 '빛(BEAT) 나 는 광명' 슬로건처럼 가을빛이 찬란한 시민체육관 앞 잔디광장에서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가수들과 밴드들의 라이브 콘서트와 다채로운 축제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얻었다.

특히 토요일과 일요일 마지막 무대를 장식한 헤이즈와 부활의 공연은 잔디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의 환호와 떼창이 어우러지며 보기 드문 장관을 연출하는 등 올해 축제의 하이라이트로 꼽혔다.

사전 공모를 통해 선발된 100명의 시민이 참여해 약 2개월간의 연습을 통해 22일 일요일 축제 광장에서 펼쳐진 시민 커뮤니티 댄스 프로젝트 "광명 흥한 춤"은 공연자와 관객이 하나 되어 즐기는 진정한 축제의 감동을 선사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 단체들로 구성된 광명예술무대를 비롯해, 힐링 테라피 원데이클래스, 힘나는 체력 부스, 폼 나는 마켓 등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들이 광명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지역 문화역량으로 채워지는 등 함께 만들고 즐기는 광명시 대표축제로 결맞은 모습을 보여줬다.

행사 종료 후 현장과 SNS 등에서는 "광명에 이런 축제가 없었는데 앞으로 계속 이런 축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번 축제 너무 재미있었다. 이런 축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등 올해 축제에 대한 만족과 내년을 기대하는 이야기들이 이어졌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난해 축제보

2023 페스티벌 광명, 6만 시민 호응 속 대표축제 면모 빛났다

2023 페스티벌 광명, 약 6만 명이 참여한 가운데 화려한 피날레



다 더욱 많은 시민이 함께 하고 즐거워 하시는 모습에서 축제를 준비한 보람과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며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 여러분에게 사

랑받고 또 자랑할 수 있는 축제로 나아가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고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용민/기자

광주시, 열정 가득한 스마트 강소농 육성



광주시가 곤지암에서 가지를 재배하는 2세대 청년 농업인을 중심으로 올해 15 농가를 스마트 강소농으로 선정, 집중교육을 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스마트 강소농이란 디지털 장비, 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스마트 농업기술을 도입해 경영혁신을 지속해서 실천하는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곤지암 가지는 재배면적이 35ha에 달해 경기도에서 생산량이 두 번째로 많으며 '물생토'라는 자체 브랜드로 출하되고 있다.

이에 시는 물생토 가치를 전국 최고의 명품 가치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민간 전문가를 초빙해 12회에 걸쳐 재배 이론교육과 스마트 강소농 현

장 컨설팅을 진행했다.

교육과 현장 컨설팅을 통해 스마트 강소농 교육의 중요성을 체감한 청년 농업인들은 자체적으로 추가 비용을 들여 민간 전문가의 심화 교육을 받고 있으며 시는 청년 농업인의 이러한 열의에 부응해 25일부터 6회에 걸쳐 스마트 경영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곤지암 가지 농가가 최고 기술력과 경영 능력을 갖춘 스마트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농촌진흥청의 지원 아래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겠다"며 "곤지암 물생토 가치가 미래 광주농업을 대표하는 명품 브랜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용인특례시, 내년 6월 열리는 '제42회 대한민국 연극제' 성공개최 위한 업무협약체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다양한 구성원이 모인 연극인들의 대축제 철저히 준비할 것"

용인특례시가 23일 내년에 열리는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의 성공 개최를 위해 (사)한국연극협회와 (재)용인문화재단과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용인특례시장 이상일 시장이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김혁수 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 (사)한국연극협회 손정우 이사장과 이도현·정아미 부이사장, 국민성 사무총장, 한원식 경기지회장이 참석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대한민국 연극인들의 대축제인 대한민국연극제가 내년 6월 용인에서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전국대학연극제'를 비롯해 다양한 구성원이 모이는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한국연극협회, 용인문화재단과 소통하고 철저히



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용인특례시와 (사)한국연극협회, (재)용인문화재단은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용

인특례시와 (사)한국연극협회는 공동 주최자 역할을 한다. 용인문화재단은 연극제가 열리는 기간 동안 사무실과 공연장을 무료로 제공하고, 업무 지원에 힘을 더한다.

손정우 (사)한국연극협회 이사장은 "지난 6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열린 '제41회 대한민국연극제' 개막식을 방문한 용인특례시장 관계자들이 행사 준비를 위해 꼼꼼하게 조사하는 것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며 "'전국대학연극제'와 아마추어 연극인들의 무대가 열리는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는 세대를 아우르고 시민과 예술인 모두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연극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범상/기자

안산시, (사)글로벌생명나눔과 관내 취약계층 지원 업무협약



안산시는 지난 23일 관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글로벌생명나눔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사)글로벌생명나눔은 저개발국가에 의료 및 교육 인프라를 지원하고자 설립된 국제 구호 NGO 단체로 라오스, 에티오피아, 우크라이나 등 개발도상국의 의료품, 의약품 등 의료 물품을 지원하는 동시에 국내에서도 취약계층을 위

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날 시청 시장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은 이민근 안산시장과 김정남 (사)글로벌생명나눔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취약계층을 위한 의약품, 의류기기, 식품, 생활용품 등 후원물품(7천70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안산시와 (사)글로벌생명나눔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고,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정남 대표는 "앞으로 안산시와 협력해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활발히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꼭 필요한 후원품을 적극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필요한 가정에 따뜻한 마음을 담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의정부시 철도 정책 자문단, 7호선 연장선 복선화 및 8호선 연장노선 검토

7호선 복선화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시민 관심 필요

의정부시는 10월 23일 철도·교통 분야 전문가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부시 철도 정책 자문단' 제8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먼저 '의정부시 철도망 효율화 방안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가 7호선 연장선 복선화 방안과 8호선 연장 노선(안)을 자문위원들과 공유하고, 이에 대해 전문가들이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자문위원들은 7호선 연장선 복선화 설계 변경 및 복선화를 대비한 선시공 필요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선시공의 실현 가능성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점검했다. 또한, 많은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8호선 연장 노선(안)을 용역사와 함께 살폈다.

자문단에서는 "7호선을 연장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단선 건설에 따라 안전문제가 심각하고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되는 등 사회적 손실이 클 것 너무나 뻔하다. 이미 진행된 공사에 대한 매출비용을 감수하더라도 복선 전철 건설의 당위성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시민



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근 시장은 "7호선 연장선의 복선화와 8호선 연장선은 의정부시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철도교통 구축을 향한 시민들의 염원"이라며, "철도 정책 자문단과 지속적인 논의를 토대로 시민들과 소통하며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하남문화재단, 2023 문화재생 프로젝트 VI '위하!:WeHA!'성료

(재)하남문화재단은 지난 21일, '하나된 위레, 위레는 하남' 슬로건 아래 2023 문화재생 프로젝트VI'위하!:WeHA!'가 많은 시민의 참여 속에 성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신도시 문화공간 부족으로 인해 지역민의 문화예술 소비에 대한 욕망을 해소하는 계기가 됐다. 위레동 어린이들을 위한 에어바운스 놀이기구와 거리 미술 공연으로 유쾌한 시간을 선사했으며, 이외에도 스크래치 엽서 만들기, 삼푸바 만들기, 쿠키 만들기, 에코백 꾸미기 등 10여 가지의 가족과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에 하남시민 약 1,000여 명이 참여했다.

또한, 위드미(현악 4중주)의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을 시작으로 '월급은 통장을 다칠 뿐', 'TELLA I' 등 독특한 음식으로 다양한 음악을 선보이는 스텔라장(Stella Jang), 재즈밴드의 축하 공연이 이어졌다. 일몰 이후에는 위레동 주민 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한 온 가족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패딩턴2'를 상영했으며, 소음 발생에 대비하여 무선 헤드폰 관람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진행했다.

하남문화재단 관계자는 "문화예술을 통해 위레동 주민들의 화합과 문화 향유 증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상/기자



이천쌀문화축제 16만 관광객 몰려 풍성한 가을 정취 '만끽'

'풍성한 가을, 함께 즐기는 풍년잔치' 12억여 원 판매 전년 대비 34% 증가

지난 10월18일부터 5일동안 이천농업테마공원에서 열린 제22회 이천쌀문화축제가 16만명의 관광객이 몰린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특히 5일동안 이천농특산물 판매액이 12억1,248만원에 달해 전년 대비 3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성공적인 축제라는 평가를 받았다.

'풍성한 가을, 함께 즐기는 풍년잔치'이란 슬로건으로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개최된 제22회 이천쌀문화축제 기간동안 햅쌀 판매만 7억8천3백여만 원, 농특산물 1억6천6백여만 원, 먹거리 등 2억5천여만 원 등 총 12억1천2백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또 이번 축제기간동안 16만5백여 명

이 축제장을 찾은 것으로 집계돼 지난해 13만1700여 명보다 21% 이상 증가했다.

13개의 테마로 구성된 마당을 통해 다채로운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 거리가 제공된 이번 축제는 농업인들이 풍년농사를 자축하는 농업인축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즐거움을 나누며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도농교류 축제, 외국 관광객들이 우리 고유의 농촌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관광축제로 화려하게 펼쳐졌다.

축제추진위는 풍성한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었던 이번 이천쌀문화축제의 성공요인으로 대동놀이축제로 특화된 11개의 마당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운

영하여 관광객이 보고, 즐기고, 먹고, 마시는 오감이 만족스런 축제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라고 자평했다.

특히 이천쌀의 진가를 맛볼 수 있었던 이천명 이천원 가마솥 밥짓기 행사와 무지개가래떡만들기 등이 관광객의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14개 읍면동이 모두 참여해 다양한 음식을 제공했던 먹거리 마당이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을 이천쌀문화축제는 행사장 관광객 수나 농산물 판매실적, 관광활성화 측면에서 성공적인 축제였다"고 평가하고, "축제 결과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내년에는 보다 내실 있는 축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범상/기자



구례군, 여순 10·19사건 75주기 추모행사 개최



전남 구례군은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현충공원, 섬진아트홀 등에서 '여순 10·19사건 75주기 추모행사'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두 번째를 맞는

추모 행사다. 10·19항쟁 구례유족회가 이번 행사를 주관했으며, 19일에는 추모연극, 20일에는 위령제 및 추모식, 추모연극이 진행됐다.

극단 '새로운 세상'은 섬진아트홀에서 여순사건 기획 연극 '뮤직드라마 슬픈 자화상'을 공연했다. 이 연극은

휴머니즘과 위트로 역사적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충공원에서 개최된 추모식에는 희생자 유족회, 이규중 유족회장, 유영광 구례 부군수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유영광 부군수는 추도사를 통해 "긴 세월 동안 슬픔과 고통 속에 지내오신 유가족들을 마음 깊이 위로한다"며, "앞으로도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규중 여순 10·19항쟁 구례유족회장은 "피해조사 및 결정의 조속한 추진과 국민 공감대가 형성을 위해 민관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구례군은 약 800건의 희생자·유족 신고를 접수하여 지금까지 50%가량 자체 조사를 완료했다. 군은 추가 진행되고 있는 희생자·유족 신고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고서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성현/기자

전남도생활체육대축전 24일 순천시 개막

3일간 22개 시군 2만여 동호인, 24개 종목 열띤 경쟁



전남 생활체육인들의 축제인 제35회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이 24일 순천 팔마주경기장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3일간 열전에 들어갔다.

'도약하는 일류순천 함께하는 행복전남'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개막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노관규 순천시장,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 시장·군수, 도의원, 시군 체육회장, 선수단 등 4천여 명이 참석했다.

대회는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등 24개 종목별(정식 21·시범 2·민속 1) 생활체육 동호인의 열띤 경쟁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전남·서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60명의 서울시체육회 동호인이 국학 기공·수영·농구·축구 종목에 참가해 두 지역 간 우호 증진을 도모한다.

김영록 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15년 만에 개최한 제104회 전국체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힘을 모아준 생활체육인을 비롯한 도민들께 너무도 감사하다"며 "11월 개최하는 제43회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 도민들의 생활체육 참여가 늘고 있다"며 "도민들이 일상에서 편히 체육을 접하고 체력을 기르면서 여가를 즐기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올해 88개 경기장에 1천

297억 원을 들여 생활체육 기반시설 확충에 힘을 쏟고 있다. 여기에 257명의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해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45개의 크고 작은 생활체육 대회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박종배/기자

목포문화도시센터, 2023 문화도시 성과페스타 개최

27일,28일 갯바위문화타운에서 문화도시 1년 성과 홍보

목포문화도시센터가 오는 27일,28일 갯바위문화타운 일대에서 '2023 목포 문화도시 문화향구페스타'를 개최한다.

'도시를 잇다 문화로 목포로'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올해 법정문화도시 2년차를 맞아 22개 사업의 성과를 알리기 위해 컨퍼런스, 성과물 전시, 문화체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7일 오후 2시 30분에 개막식으로 막을 여는 가운데, 23개 동 주민들이 참여하는 음악공연과 문화도시 사업 참여자 성과발표가 있다. 그리고, 문화도시 아카데미 인문학 강좌로 '목포의 대중음악 가수'를 주제로 음악평론가 임진모의 강연이 열린다.

28일에는 목포청년 문화나눔 공연과 익산, 완주 등 호남권 문화도시 관계자들이 모여 사례발표를 진행하며, '문화도시 예술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미술, 음악, 문학 등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하여 학술회를 개최한다.

성과전시관, 프리마켓, 문화체험은 27일, 28일 오전10시~오후 6시까지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목포문화도시센터 관계자는 "목포의

문화를 다양하게 느끼고 체험하면서 문화도시 목포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올해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앞으로도 시민이 주체가 되어 운영되는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종배/기자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가 25일~27일 사흘간 박람회장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을 위해 무료 사진 촬영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용일 프로사진작가의 재능기부로 진행되며, 한국프로사진협회와 삼산라이온스가 후원한다. 이용일 작가는 2021년에도 국가정원에서 재능

남는 건 사진 뿐! 순천정원박람회장서 사흘간 무료로 추억을 남겨드려요

서문 습지센터 1층 마련된 셀프 포토부스 '정원세컷'도 인기

기부 사진 촬영 이벤트를 진행한 이력이 있다. 촬영은 사흘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국가정원 동문 일대에서 진행되며, 호수정원을 배경으로 일일 선착순 500팀에게 촬영 및 즉석인화(1매)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조직위는 지난 8월부터 국가정원 서문 국제습지센터 1층에 셀프 포토부스인 '정원세컷'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조적이 간단하고 다양한 소품이 구

비되어 있어 누구나 재미있는 셀프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천제영 조직위원회의 사무총장은 "폐막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가을정원을 찾아주고 계신데, 마침 지역 작가님의 재능기부로 이런 이벤트를 열 수 있게 됐다. 마지막까지 정원박람회 많이 사랑해 주시고, 사진 촬영 서비스도 적극 활용해 좋은 추억 남기고 가시기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이승준/기자

남원시 가루쌀 생산단지 현장평가회 개최

쌀 산업의 게임체인저(Game Changer)'가루쌀'

남원시는 24일 가루쌀 생산의 성지 대산면에서 새싹 법인과 남원시농업기술센터가 현장평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행사는 최경식 시장을 비롯한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장, 전라북도농업기술원장 등 관계 공무원과 농업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루쌀 포장 콤바인 수확 시연, 건조 시설 가동 시연, 가루쌀을 활용한 카스테라빵과 가루쌀로 만든 자장면 시식 등으로 진행됐다.

가루쌀은 올해 6월 중순 파종을 시작해 10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수확이



한창 진행 중인 글루텐 프리(Gluten-free) 식품으로써 밀, 보리 등 곡류에

존재하는 불용성 단백질 성분인 글루텐(Gluten)에 민감 장애, 알레르기 등 신

체에 민감한 반응이 나타나는 사람들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이다.

또한 변화된 소비구조에 맞춰 가루내기 쉬운 가공용 품종으로 밥쌀과 달리 전분 구조가 밀과 같아 건식 제분이 가능하여 습식제분 대비 가공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논 기반을 그대로 활용하여 동계작물과 이모작에도 유리하다.

남원시는 지난 2022년 9월 농식품부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 지원사업 공모 선정을 시작으로 남원시 가루쌀의 포문을 열었으며, 향후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해 내년에는 면적을 45ha에서 100ha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는 "이번 가루쌀 생산단지 현장평가회를 발판 삼아 남원을 '전국 가루쌀 생산단지 1번지'로 만들어보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이남출/기자

보성군, 조성면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주거환경개선 활동 실시

도배·장판 교체 및 방치된 생활쓰레기 처리

보성군 조성면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는 지난 19일 주거환경이 취약한 노부부 가정을 찾아 생활 불편 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가정은 누수로 인해 벽지, 장판에 곰팡이가 생기고 방치된 생활쓰레기가 쌓여 있는 등 열악한 환경 속에 거주하고 있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는 벽지·장판 교체와 함께 생활 쓰레기 정리 정돈을 실시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유래준 복지기동대장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가 앞장서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진석 조성면장은 "가을 농번기로 제일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성면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는 2019년도 발족하여 15명의 기동대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주거환경개선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2022년 KBC광주방송문화재단이 주관한 '2022년 좋은 이웃 밝은 동네 시상'에서 공로상을 수상한 바 있다.

최원영/기자



함평군,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발대식 개최

산불대책본부 운영... 가을철 산불방지 '총력'



전남 함평군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이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관계자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평군청 대회의실에서 지난 23일 발대식을 가졌다.

함평군은 가을철 산불조심 중점 예방기간을 10월 23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정하고 산불예방에 총력을 다해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한, 군은 산림공원과 및 읍면 10개소에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와 더불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46명을 선발해 산불에

취약한 산림 연접 지를 대상으로 연료 물질 제거하고 산불 예방을 위한 홍보와 계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 이후 군은 산불방지기술협회 전문 강사를 초청해 산불예방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예찰활동 및 산불 발생 시 대원들의 안전을 최우선 시 하도록 당부하며 "산불 없는 안전한 함평을 만들기 위해 민·관이 더욱 협력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진도군, 도지정 무형문화유산 6종 공개행사 개최

각 문화유산별 전승지에서...조도맞배노래, 진도흥주 내리기 등 선보여

진도군이 도지정 무형문화유산 6종 공개행사를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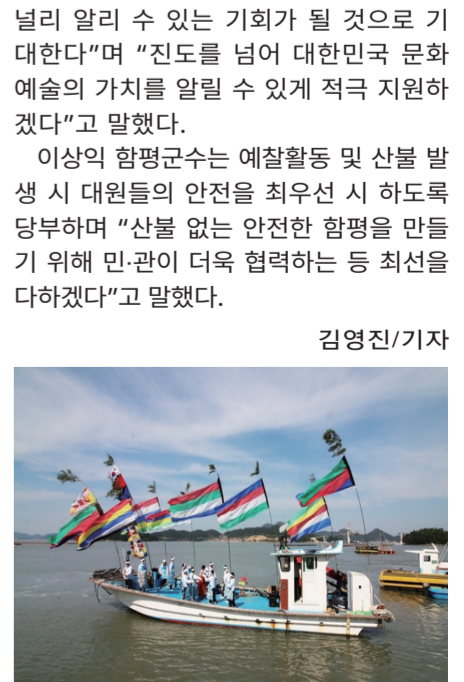
도지정 무형문화유산은 ▲진도북놀이 ▲진도만가 ▲진도흥주 ▲남도잡가 ▲진도소포결군농악 ▲조도맞배노래 등 6종이다.

대한민국 유일의 민속문화예술특구인 진도군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강강술래, 아리랑, 농악과 국가 무형문화유산 5종 등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유산이 전승되는 지역이다.

이번 공개행사는 각 문화유산별 전승지를 중심으로 각 문화유산 전승자들이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인다.

최근 지산면에서 진도만가와 진도소포결군농악을 시작으로 오는 25일에는 조도면에서 조도맞배노래 공개행사를 진행한다.

진도군 문화예술체육과 관계자는 "공개행사를 통해 진도 문화예술의 진가를



김영진/기자

전북도, 렘피스킨병 도내유입방지 총력 대응

위기 경보단계 '관심'에서 '심각'으로 상향 조정

전북도는 지난 19일 충남 서산시 소재 한우농가에서 렘피스킨병이 국내 최초 발생한 이후 23일 현재 기준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17건이 발생해 전국적으로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도내 유입 차단 및 발생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렘피스킨병 발생으로 위기 경보단계를 '관심'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소 농장 관련 종사자와 출입차량에 대해 20일 14시부터 22일 14시까지 일시이동중지 명령(Stand Still)을 발령, 도내 유입 원천 차단을 위한 파리·모기 등 흡혈곤충 집중 방제 및 예찰활동·소독 강화 등에 나섰다.



가축질병 방역대책본부를 확대·운영하고 축산차량 소독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및 도 경계 통제소 운영을 강화하고, 가축시장(11개소) 폐쇄 조치, 소 사육농가 모임 및 행사를 금지하는 한편, 긴급방역비 예산 2억원 투입 및 보건소 연무소독장비와 축협 공동방제단(46개단) 소독차량을 동원해, 렘피스킨병 전파 매개체인 모기류, 파리, 진드기 등 흡혈곤충의 방제와 축산농가 소독을 지원하고, 공수의사를 통해 현장 임상 예찰을 강화했다.

또한, 23일까지 도내 소 농가에서 렘피스킨병 의심신고는 없었으며, 소 전농가(9,651호)에 대해 전화예찰 결과 이상 소견이 없었으며, 동물위생시험소의 정밀진단기관과 연계해 렘피스킨병 의심 신고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진단 체계를 구축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소 사육농가는 행사 및 모임을 자제하고 외부인 차량 등의 출입통제, 농장 내·외부 소독 및 파리·모기 등 흡혈곤충 구제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란다"며, "고열, 피부 혹덩어리(Lumpy), 우유생산량 감소 등 렘피스킨병 의심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방역기관으로 신고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청정 완도 가을 섬 여행' 찾는 발길 '복적'

치유 콘서트, 해양치유 체험, 고산 풍류 경연, 은하수 투어 등 인기



'2023 청정완도 가을 섬 여행'이 성황리에 진행 중이다. 지역마다 가을 축제를 개최하는 축제 성수기임에도 완도의 가을을 즐기려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행사 개막 다음 날인 10월 21일 토요일에는 1천여 명이 주 무대인 해변공원을 찾았다.

특히 해양치유 체험존은 낮 시간대에 대기 줄이 형성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으며,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층 참여로 해양치유에 대한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해변공원에서 매일 오후 2시 진행되는 마술쇼와 버블쇼, 저녁 7시부터 진행되는 가을밤 치유 콘서트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

'EDM(Electronic Dance Music) 파티'는 300여 명이 함께 해 스트레스를 풀고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두 번째 'EDM 파티'는 10월 28일에 진행된다.

섬 권역에서 진행되는 청산도의 범바위 은하수 투어, 보길도의 고산 풍류 경연과 세연정 등불 축제 등에도 10월 21일 하루

동만 7백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날, 가을 숲속 음악회와 공예 체험 등이 진행되는 완도수목원에는 5백여 명이 찾았다.

한편 '약산 해안 치유의 숲'에서는 가을 섬 여행 기간 중 보물찾기, 동백 공예품 만들기 등을 즐길 수 있으며, 10월 25일과 2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버스킹 공연도 열린다.

바다와 숲의 절경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남파랑길 걷기 투어 맛보기'는 25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다.

관외 참가자에게는 행사장의 먹거리와 부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3만 원) 또는 특산품 세트를 제공한다.

군 관계자는 "푸른 바다와 가을의 정취를 동시에 만끽하며 힐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준비했으니 꼭 찾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3 청정 완도 가을 섬 여행'은 10월 29일까지 청산도, 보길도, 생일도 등 섬 권역과 완도 해변공원, 약산 해안치유의 숲 등에서 진행된다.

양영울/기자

'2023나주축제' 천연염색패션쇼 런웨이 뜨겁게 달궜다

전통 미, 현대적인 실용성 결합된 MZ세대 캐주얼 일상 패션 선보

'2023나주축제, 영산강은 살아있다' 통합축제 주무대에서 열린 천연염색패션쇼는 나주에서 명맥을 보존해온 한국 천연염색 대중화 가능성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는 무대였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통합축제 4일차인 지난 23일 오후 6시 30분 영산강동체 체육공원 주무대 런웨이에서 '천연염색 패션쇼'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나주는 국내 유일의 한국천연염색박물관이 있는 곳이다. 나주지역에선 영산강 유역을 배경으로 천연염색과 직물 생산이 활발하게 이뤄졌고 민물과 바닷물이 합류해 쪽 재배의 유리한 환경이 자연적으로 형성되면서 역사적으로 천연염색 발달의 최적지였다.

나주시는 2016년 천연염색재단을 설립해 한국천연염색박물관을 운영하며 천연염색 전통 계승, 염색산업의 진흥과 대중화에 힘써오고 있다.

이번 통합축제에선 패션쇼 전문 연출가와 협업을 통한 천연염색패션쇼를 기획했다.

이날 패션쇼는 그동안 매니아층, 높은 연령대의 사람들이 향유 해왔던 천연염색 의상의 선인권을 깨고 MZ세대, 2030패션피플이 소화할 수 있는 캐주얼한 일상복 패션을 제안했다.

지난 2008년 나주 금성관에서 천연염색패션쇼가 열린 적이 있지만 당시엔 전통의상 위주로 진행됐었기에 대중적인 관심이 적었다.

하지만 이번 패션쇼는 전통 색감을 살리면서 현대적이면서 실용성을 갖춘 천연염색의상을 통해 천연염색 대중화를 위한 새로운 루트를 개척했다는 평가다.

여기에 의상은 물론 화려한 무대조명, 쇼 음악이 패션쇼와 조화를 이루는 색다른 아트 패션 퍼포먼스로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패션쇼 1부는 MZ세대를 겨냥한 캐주얼 의상을, 2부는 나주지역 천연염색작가들의 아트웨어 작품 등 총 80여벌의 천연염색 의상을 전문모델들의



경쾌한 워킹을 통해 무대 런웨이에서 선보였다.

특히 어린이 모델이 천연염색을 가미한 맞춤 의상을 착용하고 깜찍한 워킹을 선보이며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으며 운병태 나주시장도 모델들 사이로 피날레 무대에 깜짝 등장해 재미를 더했다.

운병태 시장은 "천연염색의상은 아트

피싱, 건성 피부에 좋고 향균 작용이 뛰어난 웰빙 의상"이라며 "실용성과 더불어 이번 패션쇼를 통해 선보인 의상 작품들이 매니아, 높은 연령층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에도 향유할 수 있는 천연염색 대중화의 기폭제가 됐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안/기자

강진군, 제71주년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 개최



강진군은 '제71주년 재향군인의 날' 행사를 지난 21일, 남포 갈대축제장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주요 기관장을 비롯해, 관내 보훈·안보 기관 단체장과 향군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향군인의 다짐 낭독, 유공자 표창, 안보 결의문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유공자 표창은 강진군 재향군인회 성전현회 변철현 회원을 비롯한 12명

의 회원이 군수상, 군의장상, 재향군인회회장을 받았으며, 또한 김영배 前 재향군인회장의 대통령상 수여를 축하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축사를 통해 재향군인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하며, 보훈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강진군재향군인회는 향군회원의 권익 향상과 국가발전, 사회공익 증진을 위해 설립된 친목·애국·명예에 단체로 애국심 함양을 위한 보훈 행사 및 안보 활동 강화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추윤호/기자

농촌 청년과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화순 청춘 페스티벌

'화순 가을 펫스티벌' 하니움(운동장) 개최

'2023 청정완도 가을 섬 여행'이 성황리에 진행 중이다.

10월 28일 토요일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운동장에서 개최되는 '화순 청춘 페스티벌'에서 지난 화순 봄날 페스티벌에 이어 '화순 가을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화순 청년 회의를 주관으로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16시까지 예정된 '화순 가을 페스티벌'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과 화순 농산물 전시·홍보를 위한 농산물 베품시장(플리마켓)이 운영된다.

공식 행사로는 식전 비눗방울(버블) 공연 후 개회식과 더불어 펫 프로그램 등 농촌 청년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운영된다.

흥미진진한 반려동물 문화행사로 △청년 PET선 장기 자랑 △펫 3종 스포츠 대회 등으로 구성됐다. 참가 신청은 상반기 펫 축제를 추진한 화순 펫사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날 푸른 운동장에서 치러질 '화순 가을 페스티벌'에서는 2개월령 이상이면 반려견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윤경호/기자

전남 신안군 '2023 문화의 달' 성료... 섬 문화 세계화 가능성 봤다

'산다이'와 '섬사람' 사진 등 섬 문화 내세운 문화의 달 행사

육지를 벗어나 처음으로 섬에서 개최된 '2023 대한민국 문화의 달' 행사가 이틀간의 문화축제 일정을 마치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전남 신안군은 '섬, 대한민국 문화 다양성의 보고 - 1004섬 예술로 날다'라는 이번 문화의 달 행사 주제에 맞춰 섬 문화를 바탕으로 한 문화 프로그램을 전면에 내세워 방문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신안군은 2023 대한민국 문화의 달 행사가 예술 전문가와 일반 관람객 모두에게 대한민국 섬 문화와 수려한 자연환경을 알리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23일 밝혔다.

신안군은 문화의 달 기념행사 기간인 10월 21~22일 자은도 뮤지엄파크 일원을 중심으로 모두 15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104대의 피아노에서 뿜어져 나왔던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 신안 아해동초등학교 합창단원들이 '바다'와 '고래'를 키워드로 선보였던 공연, 바람 부는 가운데 진행했던 '외출 타기' 등 동서양 문화를 융합해 선보인 개막 공연은 5000명 안팎의 현장 관람객에게 박수를 받았다.

신안 섬사람들과 섬 풍경을 담은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노순택의 사진전 '신안, 섬의 삶, 삶의 섬(신안 만인보전)'은 신안 주민, 관람객 모두에게 잔잔한 감동을 안겼다.

행사 기간 신안을 방문한 설치 미술의 세계적 거장 제임스 터렐(미국·80)은 국내외 참석자들과 진행한 '아티스트 토크'에서 섬과 빛, 태양, 파도 소리, 별빛 등을 얘기하며 섬의 아름다움에 매료됐다고 말했다.

섬에서 처음 열리는 문화의 달 행사에 걸맞게 섬 문화를 조망하는 국제 학술대회도 열려 눈길을 끌었다.

10월 21일 열린 '2023 세계섬문화 다양성포럼'에서는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세계최우수관광마을 상을 받고 필리핀(보호), 인도네시아(음양그란), 신안군(퍼플섬) 세 섬의 사례를 살피면서 지속 가능한 관광을 모색했다.

22일 오후 뮤지엄파크 특설무대에서 열린 '보라해 댄스 페스티벌'은 총상금 1700만원이 내걸린 춤 경연 대회로 문화의 달

행사 현장을 뜨겁게 달궜다.

신안을 상징하는 보라색(purple-퍼플)에 바다(海)의 뜻을 더한 '보라해' 댄스 페스티벌은 올해 처음 개최된 행사로, 섬사람들의 독특한 축제 문화인 '산다이'와도 맥이 닿아 있다.

현장을 지켜본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렇게 많은 젊은 친구들이 한꺼번에 신안을 찾아 준 것은 처음 봤다"라며 "내년에는 예산을 더 늘려 더 큰 행사로 만들고 국제 댄스 대회 개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행사가 열린 자은도 뮤지엄파크 일원에서 준비된 '김밥 페스타'와 '푸드트럭 코너'는 '바가지요금'이 없고 맛도 좋았다는 평가를 방문객들로부터 받았다.

반면, 이번 문화의 달 행사는 섬 특유의 변화무쌍한 기상 환경으로 일부 시행착오도 있었다.

10월 20일 오후 뮤지엄파크 특설무대에서는 104명의 수준급 피아니스트가 임동창 총감독 지휘 아래 피아노 공연을 선사할 예정이었으나, 대형 텐트를 날릴 정도의 강풍이 몰아치면서 전야제는 결국 취소됐다.

김영진/기자

화순 가을 펫(Pet) 스티벌

농촌청년과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화순 청춘 페스티벌

2023. 10. 28. 토 09:30-16:00
화순 공설 운동장

주최/주관 JCI / 화순청년회연구소 후원 화순군 화순청년회 화순청년사랑회

무대행사 식전특별공연/제헌식 / OMB 빅밴드 퍼포먼스 / 농촌 청년 밴드쇼

펫 프로그램 펫 3종 스포츠 대회 / 반려동물 상식 퀴즈 / PET선 장기 자랑 / 육목 MC 올레!

농촌 청년 프로그램 화순 농특산물 전시경매 / 농특산물 무대를 활용한 청년 농업인물 아카데미 / 농특산물 OK 퀴즈 / 농촌 청년 특색 이벤트게임

청년 농업인 플리마켓 반려동물수제간식제일 / 반려견수제물스케일 / 반려동물 위생용품-건강제품 반려동물방울소 / 유기동물제일 / 청춘PET포토존

경북도, 탄소소재.부품 전시회 '카본코리아 2023' 개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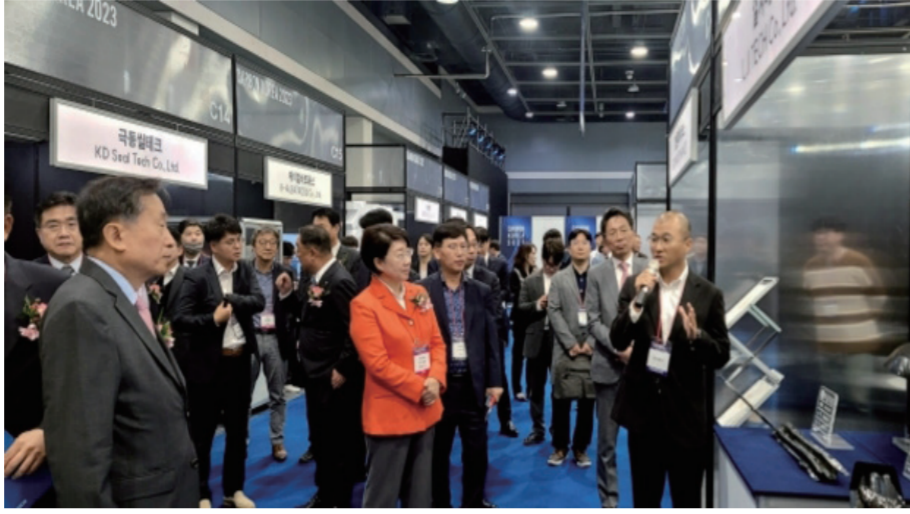
경북 15개사 참여... 자동차부품, 기계부품 등 기술개발 성과 선보여

경북도는 24일 서울 AT센터에서 이달의 경북도 경제부지사,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 국회의원 및 방윤혁 한국탄소산업진흥원장을 비롯한 탄소 관련 기업인과 기관단체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Carbon Korea 2023 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Carbon Korea 2023'은 탄소소재 및 융복합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열리는 국내 유일의 탄소복합재 전문 전시.컨퍼런스 행사로서 지난해부터 경상북도와 전라북도가 공동으로 참여하게 됐다.

이번 행사는 '탄소소재,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라는 주제로 탄소소재 제품을 볼 수 있는 탄소산업전시회, 국제컨퍼런스, 카본 아이디어 챌린지로 구성되며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국내외 90개 기업 및 기관이 부스에 참여하며 전년 대비 약 3.2배로 확장된 규모로 소재특별관, 수요산업관, 경북.전북관, 개별기업관, 창업관, 온라인 흥



보관 등 여섯 가지의 주제로 운영된다.

소재 특별관에서는 탄소섬유, 인조흑연, 그래핀 등 6대 탄소 소재의 원소재 제품 특징과 적용 분야를 선보일 예정이고, 수요산업관은 우주.항공.방산, 모빌리티, 의료기기.로봇, 에너지, 라이프케어 등 핵심 수요산업별 국내 기업 및 연구소에서 개발한 제품을 볼 수 있다.

경북관에서는 탄소복합재 제품의 결합을 찾아내는 비파괴검사 장비, 전극봉 및 가열용 소재로 활용되는 인조흑연블록, 탄소복합재로 만든 자동차 차체부품, 드론용 카본파이프, 탄소 기계부품 등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기업과 연구원에서 개발한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그간 경북도는 지역 및 국가 탄소소

재.부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제품개발 지원을 위한 '탄소 설계해석 및 상용화 기반구축', '인조흑연 테스트베드 구축', 탄소제품 재활용을 위한 '탄소소재부품 리사이클링 기반구축'과 흑연분야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방산항공우주용 탄소소재.부품 랩팩토리 조성사업'이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자동차뿐만 아니라 우주항공 및 방산분야의 고성능 탄소복합재 기술 국산화의 길을 열었다.

이달회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Carbon Korea 2023을 통해 지역탄소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경북은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도레이첨단소재, 포스코퓨처엠과 같은 대기업과 관련 중소기업이 많이 소재하고 있는 중심지로서 공용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지원, 인력양성을 통해 도내기업과 대학, 연구소가 탄소소재를 활용한 산업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제16차 대구-전북 새마을부녀회 교류행사 개최

구광역시새마을목련회·전북새마을백일홍회 초청



달성군은 지난 24일 대구광역시새마을목련회와 전라북도새마을백일홍회 회원을 달성군청에 초청하여 친목과 화합의 16번째 교류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달성군수와 이순삼 목련회 명예회장(대구광역시시장 부인), 최영수 대구광역시새마을회장을 비롯한 회원 50여 명과 목영숙 백일홍 명예이사장(전북도지사 부인), 유광수 명예부이사장(전북교육감 부인) 포함 백일홍회 회원 등 총 100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주로 시작된 이번 행사는 환영.방문인사, 선물교환 등으로 이뤄졌으며 이후에는 송해공원 기념관과 돌레길 및 사문진 주막촌 탐방 등을 둘러 대구를 대표하는 달성군의 관광지를 견학했다.

대구시새마을목련회는 대구광역시 흥준표 시장 부인인 이순삼 여사를 비롯하여 신혜진 달성군수 부인 등 각 구청장 부인, 여성 최고경영자 등 대표적인 여성지도층들이 활동하는 단체이며, 새마을부녀회 및 새마을운동 활성과 사업을 후원하고 지역사회 및 주민복지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달성문화재단 소속 음악가의 플루트 공연과 목련회 회원의 아름다운 해금 연

김동현/기자

윤경희 청송군수 국회 방문, 지역 숙원사업 국비 지원 건의



윤경희 청송군수가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지난 10월 24일 국회를 방문해

2024년도 국가 예산 추가확보를 위한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윤 군수는 정부에서 제출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예산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1월을 앞두고 지역 현안사업인 국도 31호선 도로개량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국회를 방문, 김희국 국회의원에게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국도31호선 도로개량사업(청송진보-영양입암, 청송청운-부남감연)은 청송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특히 국도 31호선 청송청운-부남감연 구간은 선형이 불량하고 도로 폭이 협소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이며, 청송진보-영양입암 구간 역시 상주-영덕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교통정체와 사고위험이 큰 상태이다.

이에 윤경희 군수는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김희국 국회의원을 만나 사업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국비 지원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내년도 국도31호선 도로개량사업 예산 편성에 대한 협조를 부탁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내년도 국비확보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교통 체증과 함께 도로 선형 불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도 31호선 도로개량사업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정부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청송군의 발전과 주민안전 및 편의를 위해 마지막까지 국비 추가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의성전통시장, 고객감사 경품대축제 개최

의성군은 지난 22일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기를 맞아 의성전통시장에서 고객감사 경품대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시장경영패키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천만원을 확보한 의성전통시장 상인회는 지난 5월 전국 소비촉진'함께하면 대박'은 2023년 동행축제'행사 기간 중 라이브커머스 생방송을 진행하여 의성전통시장만의 매력과 장점을 적극 홍보하고 전통시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홍보물품(전통시장 장바구니)도 배부하여 전통시장 상인과 이용객들에게 많은 응원과 호응을 얻었다.

이에 한 해 동안 전통시장을 꾸준히 이용해 주시는 고객과 지역민들에게 감사의 정을 나누는 가을맞이 고객감사 경품대축제까지 개최하여 2023년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을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산수유 트로트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초청 가수 공연, 각종 생활용품과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찬조한 지역 농특산품의 푸짐한 경품추첨 행사로 구성되어 진행됐다. 의성전통시장은 5일마다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모여 자연스럽게 형성된 시장으로 1965년 정식으로 등록되어 현재까지도 75개의 점포와 200여명의 노점상인들이 2일, 7일마다 각종 품질 좋은 신선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며, 흥정에 따라 각종 덩과 할인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의성군의 대표 시장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5일장의 온정을 잊지않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시장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반딧불이 복원사업을 위한 애반딧불이 유충방사

별과 반딧불이의 고향 경북 영양군이 10월 24일 영양반딧불이 보존회 회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양을 삼시수변공원에 애반딧불이 유충 1만 마리를 방사했다.

영양군 생태공원사업소 및 영양반딧불이 보존회 회원들은 반딧불이의 서식처 확대와 자연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매년 반

딧불이 출현시기에 맞춰 반딧불이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10월에는 반딧불이 서식처 확대를 위해 애반딧불이 유충 방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반딧불이는 청정한 환경에서만 서식하는 대표적인 환경지표 곤충으로서 영양군은 이번 유충 방사 행사를 통해 자연보호의

실천과 함께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영양군 어디에서나 불을 끄면 밤하늘의 별과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생태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오도창 군수는 "현대사회에서 반딧불이와 밤하늘의 별을 보기 힘들어진 만큼 영양군은 밤하늘과 반딧불이를 보호하고자 많



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야간 관광 상품 개발로 영양군을 야간 이색관광지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과학기술 중심도시를 위한, '제9회 부산 연구개발(R&D) 주간' 개최

10.26.~10.27. 벅스코 컨벤션홀에서 개최... 부산 과학기술의 현재와 미래 논의의 장

부산시와 부산산업과학혁신원(원장 서용철)은 오는 26일과 27일 양일간 벅스코 컨벤션홀에서 '제9회 부산 연구개발(R&D) 주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부산시가 주최하고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이 주관한다.

올해 연구개발 주간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부산 연구개발(R&D) 주간'을 주제로 부산 과학기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부산 연구개발(R&D) 주간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지역혁신을 추구하고,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한 연구분야, 업종, 세대 간 화합과 시민 공감대를 위해 지난 2015년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기조강연 ▲대중강연 ▲전문가 특강(3건) ▲토론회 ▲정책포럼(3건) ▲부산 연구개발(R&D) 우수성과 발표회 등이 있으며, 특히 올해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하는 ▲세계박람회(EXPO) 부스를 별도로 운영해 전년보다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했다.

개막식은 행사 첫날인 26일 오후 2시에 시작하며,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 김광명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장, 차정인 부산대학교 총장, 한승완 학교법인 대한학원 이사장, 이수태 (주)나시아 대표이사 등을 비롯해 200여 명이 참석해 개막을 축하할 예정이다.

개막식에 이어 같은날 기조강연과 대중강연이 진행된다. 오세정 서울대 명예교수(전 서울대 총장)가 '제4차 산업혁명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며, 이어서 대중강연으로 과학 유튜브 수드래곤(김블)이 '새로운 수요의 창출, 메이커스와 부산'을 주제로 참가자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양일간 진행되는 전문가 특강은 김백민 부경대 교수, 권미아 국립과학사 연구원 부산연구소장, 박형주 아주대 석좌교수가 각각 에너지 전환, 한국의 과학수사, 수학과 빅데이터, 인공지능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제공한다.

정책포럼에서는 최근 지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고급인력양성,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기술창업 등을 주제로 발제와 패널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희태/기자

포항시, 해오름동맹 시립예술단 합동공연 '신라 천년의 비상' 포항서 개최

경주와 울산에 이어 26일 포항에서 포항·경주·울산 시립예술단 합동 공연 열려

포항·경주·울산 3개 도시가 해오름동맹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시립예술단 합동 공연 '신라 천년의 비상'이 오는 26일 포항에서 펼쳐진다.

지난 5일 경주예술의전당과 12일 울산문화예술회관에 이어 26일 오후 7시 30분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되는 '신라 천년의 비상'은 3개 도시 시립합창단, 경주시립신라교취대, 오케스트라, 소프라노 박유리, 테너 강현수, 바리톤 김승철 등 200여 명이 참여한다.

총 4악장으로 구성된 이번 합동 공연은 신라의 건국 시조 박혁거세, 복진의 패기를 보여준 진흥왕, 열린 문화와 정치를 시작한 선덕여왕, 통일을 위한 화합의 정신을 담은 무열왕 시대를 조명하며, 포용·개방·다양성 등 오늘날 계승할 신라의 가치와 정신을 노래한다.

이번 공연은 초등학생 이상 입장할 수 있으며, 입장료는 전석 5,000원이다. 입장권은 티케팅링크에서 예매할 수 있으며, 잔여석에 한해 당일 현장예매도 가능하다. 문의는 포항시 문화예술과로 하면 된다.

윤태용/기자



2023 경주 울산 포항 시립예술단 합동공연

안동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지역 간 학술대회 개최

- '활동 중인 모든 지역위원회 참가, 안동' - 아·태 지역위원회 사무국인 한국국학진흥원 중심으로 국제 협력 선봉



안동시가 한국국학진흥원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지역 간 학술대회를 한국국학진흥원 인문정신연구소에서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개최한다.

'기록유산 협력문화 강화'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위원회(MOWCAP) 사무국인 한국국학진흥원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위원회(MoWLAC)'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프리카 지역위원회(ARC MoW)'를 초청해 세계기록유산 지역 목록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협업 방안을 모색한다.

현재 활동 중인 모든 지역위원회가 참가함으로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과 관련된 주요 국제 인사들이 안동에 모이게 된다. 15개국의 세계기록유산 지역위원회 대표자와 함께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18개 소장기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문화재청, 국제기록유산센터 등

에 참여할 예정이다.

27일에는 세계기록유산 사업의 홍보와 지역 간 긴밀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또한, 세계기록유산 지역위원회의 역할과 활동 계획을 발표하고 지역 간 학술대회를 개최해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28일에는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자들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3개 카테고리를 석권한 안동의 문화유산을 답사한다. 문화유산 시너지 효과 창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안동국제컨벤션센터, 병산서원, 하회마을 등에서 스터디 투어를 진행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지역 간 학술대회를 통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지역 위원회의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한국의 기록유산과 기록정신을 공유하고 기록유산 보존 정신을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청년천하 동성로' 2023 대구청년주간 개최

개막식, 공연·문화행사, 교류행사, 체험 부스존 운영 등 다채로운 구성으로 청년과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진행

대구시와 대구시청년센터는 '2023 대구청년주간' 행사를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동성로 일대에서 '청년천하 동성로'라는 슬로건으로 청년과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개최한다.

올해 9회차를 맞이하는 '2023 대구청년주간'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은 개막식, 지역 신인 및 전문예술가들의 무대공연, 유명인 초청 토크쇼, 청년가요제 및 청년댄스 경연대회, 다양한 전시 및 체험 부스존, 청년단체 교류행사 등으로 구성된다.

개막식은 27일 오후 7시 동성로 28아트스퀘어에서 열리며, 대구 청년 뮤지컬 컴퍼니의 오프닝 무대를 시작으로 다년간 축제 경력이 있는 DJ이자 가수인 박명수의 축하공연과 퍼포먼스, 대구지역 청년예술가들의 공연 등으로 대구청년주간의 뜨거운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

무대공연은 다양한 장르의 대구 신인 청년예술가와 전문예술가의 공연으로 준비돼 있다. 지역 공연예술분야 전문공연 무대공연, 타 지역에서 귀한 청년댄서들의 공연, 시각장애인 공연예술단의 음악회 등 다채로운 무대공연이 준비돼 있다.

토크쇼는 오프채팅방을 통해 실시간으로 질의 응답하는 방식으로, 28일에는 화려한 토크로 집중받고 있는 '피식대학' 이용주를, 29일(일)에는 엄지젤라로 활약하고 있는 엄지윤을 초청해 세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부스존은 라탄바구니 만들기, 케이크 만들기, 가족공예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부스와 청년 맞춤형 정책 홍보부스, 청년들의 취향을 공유 및 전시하는 기획부스,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수다방 등으로 구성·운영된다.

이 밖에도 예선전을 통과한 청년들이 대결을 펼치는 청년가요제와 청년댄스 경연대회, 대구와 광주 청년들의 달빛교류회, 전국청년참여기구 교류회, 청년정책 및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끝장토론회 등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송기찬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2023 대구청년주간 행사를 과거와 현재의 청년이 하나돼 젊음의 거리인 동성로에서 개최함으로써, 청년과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과 시민의 소통과 교류의 장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지역 청년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매사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경북도,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새로운 성장의 기회!

27일,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 포럼 개최

경북도는 10월 27일 오후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아트홀에서 산·학·연 환경-에너지 전문가와 '지방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

지방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 포럼은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새로운 성장의 기회'라는 주제 아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 탄소중립 대응 방향과 에너지 전환을 통한 새로운 성장기회를 모색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기후변화 현황부터 국가와 기업이 직면한 위험요인, 기후위기로 촉발된 세계 무역질서 재편과 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까지 국제 전문가들과 활발하게 논의한다.

이날 포럼은 제3대 세계슬라시티총회 회장인 김중달 경북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1부에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이자 경제학 박사인 홍중호 교수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시대 지역경제 성공의 길'이라는 주제로 기후 변화 현황, 탈탄소 무역규범 재편, 탄소 경쟁력과 기업경쟁력의 상관관계 및 기

후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전환과의 가치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 2부에는 (사)한국혁신연구원 위원장 이사가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이 가져올 새로운 기회'라는 주제로 세계 주요국 에너지별 의존도, 지역 신재생에너지 사업 여건, 선진 사례 공유 등에 대해 발표한다.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환경-에너지 전문가들이 심층 토의를 진행하고 청중과도 소통할 계획이다.

한편, 경북도는 지역 탄소중립 대응 방향 확대를 위해 포럼에서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신규 정책 연구과제(R&D)를 발굴하고, 경상북도 탄소중립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현애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인간이 살면서 사용하는 에너지는 기후 변화와 직결되어 있다"라며, "탄소중립 대응 방향을 다양화하고 에너지 전환 노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 성장 기회를 마련하는 데 경북도가 앞장서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2023 예천농산물축제」 11월 3일 개막! '힘내라 예천, 수확의 기쁨 함께 즐겨요'

우수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각종 전시·체험 등 풍성한 구성 - 김학동 군수, "축제장을 방문, 모두가 축제 주인공이 돼 즐기시길 바라며, 농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게 우수한 예천 농산물을 많이 구매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혀



예천군은 11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한천체육공원 일원에서 '2023 예천농산물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수확을 겪은 농민과 군민 위로, 수확의 기쁨 나누는 풍성한 축제의 장과 ▲불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 가득한 3일간의 여정에 컨셉을 두고 추진한다.

▲먼저 수확을 겪은 농민과 군민 위로, 수확의 기쁨 나누는 풍성한 축제의 장을 만들기 위해 이번 축제는 '전 국민에게 받은 위로와 격려로 희망을 그리다!'를 주제로 지난 7월 유행하는 호우피해를 입고 전 국민의 위로와 격려로 극복해가는 예천군에서 어렵게

수확한 농가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기획됐다.

축제장에는 다양한 불거리(공의 오케스트라 연주회, 청단놀이 공연, 파워업 콘서트, 각종 전시 등), 즐길 거리(농경문화체험, 곤충체험, 목재문화체험 등), 먹거리(떡국, 인절미, 쌀빵 시식회 등)가 준비돼 있고, 특히, 이번 축제에서 처음 선보이는 '예천사과 월드컵'은 사과 농가의 위상을 높이고자 사과 사모로만 평가해 우승자를 선정하는 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의 발길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불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 가득한 3일간의 여정에 위해 첫날 개장식과 함께 흑우풍물단이 신명나는 풍악으로 축제의 시작을 알리고, 예천군어린이집연합회가 참여하는 '전통놀이 한마당' 행사로 뮤지컬 공연, 전통체험 등이 진행되며 '허수아비 만들기 공모전' 작품이 축제 분위기를 장식하며, 또한, 2023 꿈의 오케스트라 '예천'의 향상연주회와 군민 화합 퍼포먼스인 지역 고품질 쌀로 만든 '오색가래 떡 만들기 행사'도 준비돼 있다.

체험부스에선 농경문화체험, 사과 햄버거만들기, 곤충체험, 목재문화 체

험 등, 농기계 박람회 국화·우리꽃 작품전시회, 예천 한우·함돈 무료시식 행사 및 구이터 운영,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전시·체험전 등 풍성한 부대행사도 진행되며, 아울러, 생산자단체가 판매 위주로 운영하는 읍면 부스에서는 우수한 품질의 예천 농산물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이벤트 무대에서는 지게 지기 대회, 농산물 반값 할인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지며 참여자들을 위한 푸짐한 상품도 제공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은 생산자단체/우수·친환경농산물 시장과 개그맨 손현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트롯 가수 김희재, 황민호, 허찬미, 주미, 비보이 플로버의 축하공연으로 축제의 막을 내린다.

김학동 군수는 "알차게 준비한 축제장에 방문하셔서 모두가 축제의 주인공이 되어 즐기시길 바라며, 농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우수한 예천 농산물도 많이 구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문경시보건소, 찾아가는 한의약 건강행복교실 운영

경로당 어르신 한의약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문경시(보건소)는 읍면 보건소시의 한의약 진료실이 없는 지역(문경읍, 영순면, 산양면)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을 선정하여 10월 23일부터 12월 14일까지 주 2회 8주간 '찾아가는 한의약 건강행복교실'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한의약 건강행복교실은 공중보건학의사, 간호사 등 전문 의료인이 직접 해당 마을 경로당을 방문하여 근골격계 급성·만성 통증을 방문하여 침 치료 등 한의약 진료와 함께 혈압·혈당 측정 및 한의학과 관련된 건강상담 등의 의료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한방요가 및 근력운동(주 1회) ▲한방약선(보습로션 만들기) ▲심폐소생술 교육 ▲상항별 감염병 예방수칙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건교육도 함께 전달할 계획이다.



문경시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 및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봉화군, 국악인 남상일 초청 10월 봉화아카데미 개최



리 이야기'라는 주제로 국악인이자 방송인인 남상일 대표를 초청해 봉화아카데미 강연을 개최한다.

이번 강연을 맡은 남상일 대표는 남상일아트컴퍼니 대표이자 우리창극연구회 회장, 국립극장창극단 단원으로 우리 국악 연구에 힘쓰고 있으며, KBS 불후의명곡, 아침마당, MBC 복면가왕, 라디오스타 등 TV 프로그램에 자주 출연해 재치있는 입담을 펼치며 국악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남상일 대표는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우리 소리를 발굴하고, 그 소리에 담긴 우리 민족의 얼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번 강연에서는 국악은 지루하고 어렵다는 편견을 깨뜨리는 내용으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봉화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초청해 군민들에게 다양한 지식과 정보 및 폭넓은 교양함양과 소양을 넓혀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북도, 네덜란드 세계원예센터 전문가 초청 컨설팅 실시

10월 24일~26일까지 상주 스마트팜혁신밸리에서 개최



경북도는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상주 스마트팜혁신밸리에서 세계원예센터 한국사무소 주관으로 네덜란드 전문가를 초청해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을 위해 네덜란드 세계원예센터 CEO를 비롯해 스마트팜 관련 전문가 3명이 한국을 방문했다.

첫 날에는 시설원에 재배 전문가인 Peter van Weel(피터 반 월)의 강의를 시작으로 혁신밸리 내 입주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과 1:1로 만나 스마트팜 재배 기술을 전수했다.

특히, 혁신밸리 임대팀의 온실을 직접 방문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복합환경제어기의 정밀 제어와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네덜란드의 노하우를 전수했다.

교육에 참여한 청년 농업인은 "정밀한 환경제어와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술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며 "네덜란드 전문가가 내가 경영하는 온실에서 직접 컨설팅을 해주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둘째 날은 스마트팜혁신밸리 실증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스마트팜 관련 기업을 만나 복합환경제어기, 센서, 로봇 등

제품개발 및 시장화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했다.

또한, 이번 컨설팅과 더불어 26일에는 스마트농업 국제심포지엄도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네덜란드와 국내 스마트팜 온실 관리 기술을 서로 소개하고, 지속 가능한 작물 재배를 위한 해결방안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와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경북도는 네덜란드 월드호티센터(World Horti Center)의 한국 플랫폼으로 세계원예센터 한국사무소(WHC KOREA)를 개소한 바 있다.

김주영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세계원예센터 한국사무소를 통해 네덜란드와 교류 기회를 확대해 경북의 농업인들이 네덜란드의 선진 기술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고, 국내 기업의 스마트팜 기술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영덕 영해고, 2023'내 꿈을 잡(Job)아라'진로 캠프

비전스쿨 맞춤형 진로진학로드맵

영해고등학교(교장 김미애)는 2023년 10월 19일 영덕교육지원청 주관 2학년 대상 '전공 기반 프로젝트 진로캠프' 및 1학년 대상 '비전스쿨 맞춤형 진로진학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진로진학 캠프 프로그램은 학생 중심의 교육으로 운영됐다. 진로 관련 관심 주제를 선택하여 각 전공의 주제와 이슈에 대해 이해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변화하는 대입전형을 파악하여 자신만의 개별적 전략 수립을 위해 자신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점검하고 보완점을 파악하며 스스로 계획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했다.

1, 2학년 진로진학 캠프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다수는 "전공기반 주제탐구 프로젝트, 맞춤형 진로진학 코칭을 통해 학교생활기록부를 점검하고 학교생활을 통한 보완점과 계획을 세워보는 프로그램으로 자기주도적인 진로 설계에 도움이 됐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미애 교장은 영덕교육지원청과 연계한 진로캠프 및 진로진학로드맵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학업계획과 진로진학플랜을 설계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개선점을 파악하여 진로진학 로드맵을 정



리하며 체계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진로진학 설계 능력이 함양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했다.

장문화/기자

'일상의 심포를 찍다' 영주시, '백두대간 지역상생 산림치유박람회' 개최

-27~29일, 초청가수공연, 쿠킹클래스, 캠프파이어, 산림치유 프로그램 등 진행 -금두섬 영주시 산림과장, "박람회에 오신 분들이 다양한 산림치유 문화콘텐츠를 마음껏 즐기시면서 일상에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가시길 바란다"고 밝혀



'2023 백두대간 지역상생 산림치유 박람회'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봉현면 국립산림치유원 일대에서 열린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상생의 가치를 느끼고 스트레스 해소와 평안한 시간을 경험할 수 있는 산림치유 박람회는 백두대간 입산자원을 알리고 관광역 유치로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국립산림치유원이 주최하고 경상북도와 영주시가 후원하는 이번 박람회는 산림치유, 산림문화, 탄소중립, 지역상생의 네 가지 주제로 산림치유에 콘텐츠 발굴 홍보 및 다양한 콘텐츠를 접목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가수 정인과 마독스, 아카펠라그룹 'MTM'이 숲과 음악이 있는 주말 저녁 초

청가수로 함께하며, 이외에도 박푸른숲, 디아만테, 라온제나, 요들누나 '동해', 배은희 등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이 참여한다. 또한 어린이를 위한 맞춤 공연 '클라운진의 별론 매직'과 지역 아티스트들의 참여로 더욱 풍요로운 무대가 예상된다.

주인참여 프로그램인 쿠킹클래스와 정원 사진공모전, 목재공예 체험 등 다양한 체험과 판매부스에서 만날 수 있는 인삼, 인견, 사과, 꿀, 건나물 등 지역 특산물까지 골고루 마련돼 있다. 또, 근심을 태우는 캠프파이어와 밤하늘 별을 함께 보며 마음을 다스리는 야간 프로그램까지 자연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알차게 준비돼 있다.

박람회의 자세한 사항은 국립산림치유원 누리집(<https://sooperang.or.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54-639-3400)로 문의하면 된다.

금두섬 영주시 산림과장은 "이번 백두대간 산림치유 박람회가 산림의 치유 효과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산림치유 산업 저변 확대와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박람회에 오신 분들이 다양한 산림치유 문화콘텐츠를 마음껏 즐기시면서 일상에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꿈이 이루어지는 마법같은 순간, '제18회 부산불꽃축제' 개최

11.4. 제18회 부산불꽃축제 개최... 광안리해수욕장, 이기대, 동백섬 3point 연출, 관람지역 다각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결정을 앞두고 모두의 염원을 담아 준비한 피날레가 열린다

부산시는 오는 11월 4일 광안리 해수욕장 및 이기대, 동백섬 앞에서 '제18회 부산불꽃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부산불꽃축제는 오는 11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결정 전 전 세계에 부산의 매력을 어필하고 안전한 엑스포 개최 역량을 마지막으로 입증할 기회이며, 범시민적 유치 열기를 결집하는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부산불꽃축제 연출 포인트는 ▲부산에서만 볼 수 있는 25인치 초대형 불꽃 ▲관안도를 배경으로 한 시그니처 불꽃(나이아가라, 컬러리콰수) ▲광안리, 해운대, 이기대 3포인트 연출 ▲불꽃축제 기대감 고조를 위한 사전 예고성 불꽃 ▲부산 시민과 함께하는 사연 공모 불꽃이다.

프로그램은 ▲사전행사인 불꽃 스트리트 을 시작으로 불꽃 토크쇼, 개막 세리머니와 ▲본행사인 부산멀티불꽃쇼, 커튼콜 불꽃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불꽃 스트리트(14:00~18:00)는 주간 시간대 관람객들이 축제 현장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볼거리의 콘텐츠를 운영하며, 단순 버스킹 공연에서 나아가 관객과 호흡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불꽃 토크쇼(18:00~19:50)는 1부 불꽃 아카데미와 2부 시민 사연 불꽃으로 구성된다. 1부 불꽃 아카데미는 불꽃 해설과 올해 연출 방향, 음악 소개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2부 시민 사연 불꽃에서는 시민들이 신청한 사연과 신청곡에 맞춰 불꽃이 시연될 예정이다.

부산멀티불꽃쇼(20:00~21:00)는 'DREAM, 꿈이 이루어지는 무대'라는 테마 아래 1부 '모두의 꿈이 모이다', 2부 '꿈이 이루어지다'를 주제로 약 1시간 동안 다채로운 불꽃이 연출된다.

축제의 마지막과 내년을 기약하는 커튼콜 불꽃(21:00~21:05)을 통해 부산불꽃축제를 위해 근무한 근무자들과 찾아준 시민들에게 감사한 의미를 담은 불꽃을 연출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 한 달을 앞두고 이번 부산불꽃축제 범시민적 유치열기 결집을 도모하고 하나의 준비된 꿈, 준비된 부산(BUSAN IS READY!)의 꿈이 완성될 바라면서 안전하고 매력적인 엑스포 개최역량을 입증하며 피날레를 장식하고자 한다.

'Future World Music'의(The Magic



Forest' 음악을 배경으로 부산만의 시그니처 불꽃인 25인치 초대형 불꽃 연출로 눈부시게 빛나는 수많은 부산시민의 꿈들이 수놓아지는 부산불꽃축제의 화려한 막을 올린다.

올해는 기존 해의 초청 불꽃과 부산멀티미디어 불꽃으로 구성하던 형태에서 불꽃쇼 전체를 하나된 스토리로 더욱 몰입감 있게 전개할 예정이다. 올해는 특히 화약의 품질개선을 더욱 신경쓴 컬러감과 웅장한 규모감으로 국내 최대 멀티미디어 불꽃쇼로서의 부산의 명성을 보여 줄 예정이다.

또한, 10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여 전문적이고 강화된 안전관리로 초대형 행사 안전사고제로 부산의 역량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증명할 것이다.

부산불꽃축제는 광안리해수욕장, 이기대 및 동백섬 3포인트 연출로 관람지역을 다각화했다. 또한,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유튜브, 라디오를 통해 불꽃축제 생중계를 즐길 수 있다.

유튜브 생중계는 부산엠비씨(MBC), 케이엔엔(KNN), 부산티브,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공식계정에서 시청 가능하며 케이엔엔(KNN) '파워 FM' 99.9Mhz에서 라디오 생중계를 통해 실시간 음원을 들을 수 있다.

김태희/기자

문화가 있는 구미, 곳곳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 펼쳐져

28일, 금오산 분수광장에서 '청춘 마이크' 경상권 공연 개최

구미시는 26일 물꽃공원(사곡동 소재)에서 구미문화원 주관으로 10월 문화 우리동네 안으로'는 경상북도 공모 사업에 신청해 선정된 사업으로,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기본법에 근거해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매달 마지막 수요일과 그 주간에 다양한 문화혜택을 제공하는 날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4년 1월부터 지정, 시행하고 있다.

또한, 시는 28일 금오산 분수 광장에서 2023년 문화가 있는 날 '청춘 마이크' 경상권 공연을 개최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공연은 열정과 재능 있는 청년 예술가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재정 지원을 통해 전문예술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청춘 정음:청년들이 말하는 바른 소리'를 주제로 이야기 형식의 공연이 진행되며, 생생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또한, 경상권(대구, 부산, 울산, 경북, 경남) 지역 청년들의 삶을 예술로 풀어내 관객들이 청춘의 아름다움과 열정을 느끼고 행복한 삶을 꿈꾸게 한다.

1부에서는 김창아, 홀리오리다, Hon's, DAVID CREW, TAI 가, 2부에서는 체르 앙상블, 하쿠나훔타타, 카이크루, 청춘다온, 아트뱅크, 김대경 Quartet, 싱어송라이터 장호성, 웨이브라스가 공연을 펼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매달 문화가 있는 날 우리 동네 안에서 쉽고 친숙하게 흥겨운 공연과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시민 모두가 일상이 행복한 낭만 문화도시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윤근수/기자



문의 053-216-3172

경북교육청, '2028 대입지원전략 연구회' 발족

교육부 대입제도개편 시안 발표에 따른 전문연구회 구성



경북교육청은 10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대응하기 위해 '2028학년도 대입지원전략 연구회'를 발족했다고 24일 밝혔다.

'2028학년도 대입지원전략 연구회'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이 대학 입시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최종 확정안에 대한 제안 의견을 마련함과 동시에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발족했다.

연구회는 박병욱 교장을 위원장으로 본청 대입 담당 장학사 및 경북진학지원센터 담당 연구사, 경북진학지원단에서 활동하는 진학 전문가, 고등학교 교과 담당 교사 등 9명으로 구성했다.

23일 본청에서 진행된 연구회 1차 회의에서는 △교육부의 대입제도개편 시안과 보도자료 분석 △사전 수렴한 시안 관련 현장 의견 분석 △연구회 운영 방향 수립 및 연구 과제 설정 △연구회의 현장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도내 중학교 1, 2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 설명회' 비대면(유튜브 송출)으로 실시해 약 2,300여 명의 학부모들이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하는 등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한 교육 현장 지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2028 대입제도개편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전문 연구회를 발족했다"며 "변화하는 대학입시 제도로 자칫 혼란스러울 수 있는 학교현장을 위해 시의성 있으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북교육청,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선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속적으로 확충



경북교육청은 최근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 위기와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신·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2008년부터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비율(23년 32% 이상 2030년까지 4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교육청은 2023년 상반기까지 148교에 12,607Kw 규모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했다. 태양광 발전설비의 연간 발전량은 17,685Mwh정도로 이는 한 해 동안

17억 원 정도의 학교 전기요금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

경북교육청은 향후 5년 동안 그린뉴딜 사업으로 추진되는 그린스마트스쿨 및 자체 신·증·개축 학교에 다양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발전설비를 적용해 예산과 에너지 절감에 최적화된 설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무형 시설과장은 "기후 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 현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미래세대에게 남겨줄 지속 가능한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부산교육청,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서 43명 입상

금메달 3개, 은메달 5개, 동메달 7개 등 메달 41개 획득

부산광역시교육청은 14일부터 20일까지 충청남도 일원에서 열린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한 학생선수 99명 중 43명이 입상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24일 밝혔다.

국내 최고의 숙련기술인을 뽑는 이번 전국기능경기대회에는 50개 직종에 17개 시·도 선수 1,691명이 참가했다. 부산 직업체고 학생은 39개 직종에 99명이 출전해 금메달 3개, 은메달 5개, 동메달 7개, 우수상 6개, 장려상 20개를 수상했다.

이 가운데 부산기계공고는 냉동 기술·폴리메카닉스 부문에서, 금정전자고는 전기기기 부문에서 각각 금메달 수상자를 배출했다.

또, 부산기계공고는 CNC밀링·기계설계CAD·메카트로닉스(2) 부문에서, 부산자동차고는 자동차차체수리 부문

에서 각각 은메달을 획득했다.

특히, 부산기계공고는 금메달 2개, 은메달 4개, 동메달 4개, 우수상 4개, 장려상 5개를 획득해 지난해 은탑 수상에 이어 올해도 은탑을 수상하는 등 6년 연속 우수 선수 육성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대회에서 폴리메카닉스 등 기능경기위원회 협약기업 종목에 입상한 학생들은 졸업 후 해당 기업으로 취업할 예정이다. 또, 부분별 1위와 2위를 차지한 학생들은 국가대표 선발 과정을 거쳐 국제기능올림픽에 대한민국 대표로 참가할 기회를 얻는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자신들의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학



생들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부산시,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유관기관과 꾸준히 협력하며, 우수

한 숙련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원 및 독서실 설립·운영자 연수 실시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23일 광주시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관내 학원 및 독서실 설립·운영자 400여 명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

2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학원장이 준수해야 할 책무 및 학원법 관련 개정사항 등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원 및 독서실 운영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올해 첫 4차례 한국학원총연합회 광주지회에 위탁해 진행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교습소까지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범위 확대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업'(PC방)과 '휴게음식점업'을 함께 운영하는 '복합유통게임제업'의 유희업종 시설에서 제외 ▲국제화 분야 외국어 원격 교습에 한정 전문대졸 이상 학력의 외국인 강사 자격 완화 등 학원법 관련 개정사항 ▲학원 운영자 준수사항 ▲아동학대 등에 대한 안내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아이들의 교육과 더

불어 건전한 학원 운영을 위해 힘써주시 학원 및 독서실 운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연수가 안전하고 건전한 학원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 교육청과 학원 모두 학생 교육을 위해 잘 협력해 나가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은 오는 11월 중에는 외국인 강사를 대상으로 한국 문화 적응, 교수학습법 및 강의, 법적 의무 교육 등 준수사항 등의 연수를 실시 할 예정이다.

김병수/기자



울산교육청, 울산 교육과정 총론 첫 고시

개정 교육과정 고시(2022년 12월 22일) 이후 교원, 학생, 학부모, 교육전문가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 마련한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 총론이다.

교육공동체는 울산 교육과정 총론 개발 협의회를 중심으로 포럼, 설문조사, 집중숙의, 전문가 검토, 공청회 등을 운영했다.

총론은 울산 교육과정의 방향, 울산 교육과정의 특성, 학교 교육과정의 반영 사항, 학교 교육과정 지원의 4개 장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공동체, 포럼, 설문조사, 집중숙의 등 운영

특히 3장에는 울산교육 비전인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 울산교육의 지표인 '배움이 삶이 되는 학교,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을 실현하고자 울산 미래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배움과 삶을 주도하는 역량 개발 중심의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이 가능하도록 단위 학교에서 반영할 사항도 담겨 있다.

천창수 교육감은 "울산의 특징과 울산교육 주체의 필요·요구를 반영하고자 시민과 함께 만든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을 최초로 고시한다"며 "유치원·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기준을 정한 만큼 유치원과 학교 교육과정에 울산교육의 비전과 지표를 실현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다"고 말했다.

황규진/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울산시교육청 승격 이후 처음으로 울산광역시 교육과정 총론을 24일 시교육청 누리집에 고시했다.

울산광역시 교육과정 총론은 2022

예천군 우수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예천장터

예천 사과

물 좋기로 소문난

醴泉

鳳凰, 非醴泉不飲(莊子)
봉황은 예천이 아니면 마시지 않는다.(장자)

예천 참기름

예천 한우

주문 및 상담안내 : 054)650-6280
<http://www.ycjang.kr>

검색창에서 예천장터를 검색하세요!

강원도, 2023년“엄지척 명품마을”(우수 농촌체험휴양마을) 선정

횡성 고라데이마을 등 5개 마을, 농촌체험단 “팜 트래블러” 운영

강원특별자치도는 2023년 엄지척 명품마을로 선정된 농촌체험휴양마을 3개소(인제 냇강마을, 원주 섬강 매향골마을, 삼척 덕풍계곡마을)에 엄지척 인증현판과 도지사 표창장을 전달했다.

엄격한 심사와 평가를 통해 선정되는 엄지척 명품마을은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서비스 품질 개선과 위상 제고, 마을 소득향상 등 농촌 마을의 활력을 위해 2018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올해 지정된 마을까지 도내에 총 22개 마을이 있다.

올해 선정된 엄지척 명품마을은 원주 섬강매향골마을, 삼척 덕풍계곡마을, 인제 냇강마을로 농촌관광 등급심사제 2등급 이상의 마을 중 시설 안전성, 프로그램 우수성, 취식 관리, 운영체계 및 관리실태 등 체험마을에서 요구되는 필수 요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들 마을에는 인증현판과 함께 마을 활동 유공자에 대한 도지사 표창이 수여 되고, 프로그램 운영 및 소규모 시설개

기존 인증이 만료되는 마을 중 재인증 대상으로 선정된 횡성 고라데이마을, 원주 섬강마을, 인제 마의태자권역마을에도 인증현판이 전달됐고, 향후 3년간 우수마을의 자격이 연장된다.

또한, 도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유망 여행테마 중 하나로 농촌관광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는 가운데, 횡성 고라데이마을 등 5개소 마을에 농촌관광 체험단인 ‘팜 트래블러’를 운영하여 트래킹, 돌목걸이 만들기, 무쇠밥 짓기, 블루베리 머핀만들기, 염색체험, 수채화 그리기 등 숙박·체험활동을 실시하고, SNS를 통한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석성군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장은 최근 농촌관광은 농촌에서만 할 수 있는 콘텐츠를 통해 감성적 심을 선호하는 수요가 늘고 있어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체험에만 국한하지 않고, 휴양·휴식을 주는 국민 여가형 명품마을로 육성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등원/기자

'태백산 천제' 문화체육관광부 '로컬100' 선정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지역의 문화 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명소, 콘텐츠, 명인 등을 '로컬100(지역문화매력100

선')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 중 태백시의 대표지역문화콘텐츠 '태백산 천제'가 로컬100에 선정됐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1,000여곳의 후보군 중에서 국민발굴단 심사와 빅데이터 매력도 분석,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100선이 확정된 것으로 지역문화자원에 기반을 둔 유·무형의 지역문화 명소와 지역문화 콘텐츠, 지역문화 명인 등 선정된 '로컬100'은 문체부에서 2년간(2023~2024년) 국내외에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태백산 천제는 매년 개천절, 민족의 영산 태백산 정상에 위치한 천제단에서 세계평화, 민족통일, 국태민안, 우주풍

조를 기원하는 제례행사로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신라 일성왕 5년(서기 138년) 10월 왕이 친히 태백산에 올랐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태백산 천제는 1981년 태백시가 출범한 뒤 지자체 행사로 지위를 격상하여 매년 개천절에 태백시문화원이 주관해 치르고 있으며, 지난 1991년에는 국가 지정 중요민속문화재 제228호로 지정되어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시민행렬, 산상음악회 등의 시민참여 문화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지역의 매력을 대표하는 로컬 100에 태백산 천제가 선정되어 자랑스럽다"라며 "앞으로 태백시를 대표하는 지역문화콘텐츠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진/기자

박경귀 아산시장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 동참

연탄 8000장 후원...충남개발공사와 충남적십자사와 함께 구슬땀



아산시는 24일 보각사(시민로303번길 50) 일원에서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충청남도개발공사와 함께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봉사활동에는 박경귀 아산시장, 문은수 충남적십자사 회장, 활종현 충남적십자사 부회장, 정영숙 아산지구협의회장 및 적십자 봉사원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석안 충남개발공사 사장 등 직원 40여 명도 동참했다.

이날 행사는 충남개발공사에서 1000만 원을 후원해 마련한 연탄 8000장을 관내 취약계층 20가구에 각 400장씩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런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아산 발전에도 탁월한 역할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이어 "공공기관에서 직접 참여한 연탄 봉사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행사 같다"며 "어려운 이웃에게 큰 기쁨을 주는 오늘의 봉사는 부메랑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울 것이다. 아산시도 항상 소외된 이웃을 살피는 시정을 펼쳐겠다"고 말했다.

문은수 충남적십자사 회장은 "추운 겨울에 대비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랑의 연탄 나눔을 함께 해주신 아산시와 충남개발공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면서 "충남적십자사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할 수 있도록 지속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정석안 충남개발공사 사장은 "이번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냈으면 좋겠다"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을 전하는 충남개발공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원호/기자

10월의 마지막 주말, 원주로 떠나는 힐링여행

10월 28일~29일, 원주 곳곳 풍성한 즐길거리로 짝찬 주말 보내세요



깊어가는 가을 10월의 마지막 주말, 힐링도시 원주에서는 가을을 느끼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들이 곳곳에서 펼쳐진다.

동화마을 수목원 가을축제와 800년 수령의 반계리 은행나무, 강원감영과 국화전시회, 만두축제와 국제견기대회, 간현관광지와 뮤지엄 산까지 어느 하나 거를 것 없는 가을 맞춤형 행사들이 즐비하다.

10월 28일 주말 첫날, 원주 초입 문학 IC 인근에 위치한 '동화마을 수목원'에 방문하면 알록달록 가을꽃이 만개한 수채화 같은 산책로를 거닐며 오감체험, 숲속 음악회 등 가을축제를 즐길 수 있다.

며 가지각색의 만두도 맛보고 만두 경연대회, 만두 트롯쇼도 즐기며 원주에서의 가을밤을 보내기를 권해본다.

이튿날인 10월 29일에도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빼곡하다.

그 시작은 세계 15개국의 참가자들이 함께 하는 원주국제견기대회다. 다양한 견기 코스를 따라 원주의 아름다운 가로수길과 돌레길 등 곳곳을 누비다 보면 살랑살랑 불어오는 아침 바람 속, 한층 짙어진 가을을 만날 수 있다.

오후에는 원주의 대표 관광지인 '간현관광지'로 이동해 출렁다리와 울렁다리, 산비경을 끼고 도는 소금잔도, 단풍으로 물든 아름다운 절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스카이라워를 체험하며 재미와 스릴을 동시에 느껴볼 수 있다. 반대로 사색과 명상에 잠기고 싶다면 세계적 건축가인 안도 타다오가 설계한 '뮤지엄 산'을 관람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원주를 빠져나가기 전 800살이 넘는 천연기념물이자 어마어마한 크기로 감탄을 자아내는 '반계리 은행나무'에 둘러 원주 가을 여행의 마지막 여운을 달래볼 수 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원주는 수도권과 한 시간 거리의 초인접도시지만 수도권에서는 느낄 수 없는 자연과 레저를 만날 수 있다"라며, "10월의 마지막 주말, 풍성한 행사가 가득한 원주에서 가을을 만끽하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정환/기자

충북도, 림피스킨병 확산 차단을 위한 총력대응체계 구축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방역활동 지원 등 확산 차단에 총력 대응

소 림피스킨병이 충북 음성 등 내륙에서도 발생함에 따라 충북도가 림피스킨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지난 20일 충남 서산에서 처음 발생한 소 림피스킨병은 그간 충남 서산, 당진, 경기 평택, 김포 등 서해안을 중심으로 확산됐고, 22일 음성군 원남면 소재 한우농가에서도 발생이 보고, 23일 최종 확진 판정됐다.

이 병은 모기, 진드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감염된 동물에서 고열, 피부의 혹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우유 생산량 감소와 유산, 불임, 폐사 등의 문제도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23일 확진 즉시 관계부서 합동으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 초기 차단이 방역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김영환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고 필수지원단 4개 부서는 물론 10개 기타 협업부서가 참여하는 충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일부터 구성 운영키로 했다.

구성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 소 사육농가 이동경로상 통제소 설치와 일시이동중지 명령에 따른 이동제한 관리, 방역대 설정, 해당 농장 살처분, 가축시장 폐쇄 등 초기대응을



신속히 완료하는 한편, 시, 군 축산부서 및 보건부서 등이 협업하여 흡혈곤충 차단 방역을 신속, 강력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행안부 특별교부세 교부 및 백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농가들의 방역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재난문자(CBS) 발송과 도청 전광판, 마을방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림피스킨병 방역 활동을 홍보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난 주 국내 첫 발병에 이어 우리 도까지 전파되어 확산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발생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도민들의 큰 피해를 사전에 막는다는 사명감을 갖고 관련 기관·단체·농가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빈틈없는 방역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정화/기자

천안예술의전당,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천학의비상' 공연 개최

모던발레 '천학의비상' 공연, 27일 천안예술의전당 소공연장서 개최



천안문화재단은 오는 27일 오후 7시 30분 천안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천학의비상'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3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은 전국 문예회관을 활용한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문예회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나라발레씨어터의 '천학의 비상'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자연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여수 순천만의 천연기념물 흑두루미의 생태적 특징을 재해석한 창작 모던 발레 공연이다.

이번 작품은 13년간 갈려 살아온 흑두루미 '두리'가 순천만의 자연환경에 적응하고 흑두루미 무리와 어울려 여

러 험난한 일을 겪는 이야기이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최하고 천안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공연의 관람료는 전석 1만 원이다. 관람문의와 자세한 사항은 천안 예술의전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원호/기자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 中쓰촨성 청두시 당서기와 도시간 교류활성화 논의

24일(화) 스샤오린 청두시 당서기와 만나 서울시-쓰촨성·청두시 교류에 대해 논의

오세훈 서울시장은 스샤오린(施小琳, Shi Xiaolin) 중국 쓰촨성 청두시 당서기 겸 쓰촨성 부서기와 10월24일 서울 시청 집무실에서 만나 서울시와 쓰촨성·청두시 간 친선교류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중국 지자체의 당서기급 인사가 시장을 예방한 것은 4년 만의 일이다.

그간 코로나 등의 이유로 한중간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스샤오린(施小琳, Shi Xiaolin) 당서기는 2021년 8월 청두시 당서기에 부임했으며, 중국 성도 도시 중 '최연소 1인자'이자 현재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이다. 중앙위원회(204명) 결원 발생 시 선발 가능성이 전도유망한 인물로 손꼽힌다.

스샤오린(施小琳, Shi Xiaolin) 당서기는 쓰촨성 부서기 직책도 겸직하고 있다. 서울시와 쓰촨성은 2014년 우호협력도시로서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



오, 성장·부성장 대표단 서울시 방문('16, '18), 공무원 초청 시정연수('16.6.), 쓰촨성 전통예술공연단 서울공연('18.9.) 등 활발한 교류를 지속해왔다.

으며 전년 대비 교류규모가 30% 이상 증가하는 등 한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곳이다.

청두시는 쓰촨성의 성도(省都)로, 매년 개최되는 '중국 행복 도시 포럼'에서 중국에서 행복감이 가장 높은 도시로 14년 연속 1위에 선정되며 중국에서 '떠나고 싶지 않은 도시'로 알려졌다.

이날 오세훈 시장과 스샤오린(施小琳, Shi Xiaolin) 당서기는 면담에서 서울과 쓰촨성, 청두시와 그간 코로나 등으로 주춤했던 우호 교류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 교류 협력 강화방안을 함께 논의하는데 입장을 같이했다.

특히, 스샤오린(施小琳, Shi Xiaolin) 당서기는 수변공원 조성에 관심이 많아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 전 일정으로 청계천박물관과 청계천 현장 방문을 다녀오기도 했다. 서울시가 청계

천복원을 통한 도심 수변공간을 확보하여 시민뿐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사랑받는 공간이 된 것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했다.

또한, "서울시와 쓰촨성의 우호협력을 이미 맺었으며 저희 청두시와 서울시 간에 교류가 풍부해지길 희망한다."며, "서울의 많은 기업들도 청두에 진출해 있으니, 도시 간 문화, 관광 분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한중 고위급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지자체들 간에도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서울시가 집중하고 있는 공원 조성 현장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서울정원박람회' 현장방문을 추천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청두시 당서기와 면담 이후에도 친선도시인 베이징시뿐 아니라 상하이, 장쑤성, 광둥성, 텐진시, 저장성 등 우호 협력 도시들과도 코로나 이후 뜸해진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의 중이다.

최광수/기자

아산시 '제338차 안전 점검의 날' 캠페인 시행

가을철 안전 위험 요인 신고 당부 등

아산시가 지난 23일 온양온천역 일원에서 '제338차 안전 점검의 날' 캠페인을 시행했다.

이날 캠페인은 시 안전총괄과 직원, 안전보안관, 아산상록회 회원 등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을철 안전 위험 요인 집중 신고 기간(10. 1.~11. 30.) 안전신고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한 신고 당부와 생명 대피 안내지도 등의 홍보를 진행했다.

임택 안전총괄과장은 "시기별 안전 강화 캠페인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 행복 도시 아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오는 27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2023년 하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불법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차량으로 ▲자동차미인가 개조(소음기(머플러)·스포일러·난간대 등) ▲등록번호판 위변조와 고의 훼손 및 가림 ▲등화장치 임의 설치, 착색 등 불법 개조 ▲화물차 적재할 판스프링 불법 부착 ▲무등록

(사용폐지) 운행 차량 등을 말한다. 특히,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전문가인 자동차 안전단속원이 담당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불이행 시 형사처벌)을

내리고 정도가 심한 경우 과태료 부과(사안에 따라 3만 원 ~ 50만 원) 또는 형사 고발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자동차를 철저히 단속하여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한영기/기자

사천해경, 차도선 내 전기차 화재 수난대비기본훈련 실시



사천해양경찰서는 24일 차도선 내 전기차 운송 증가에 따른 전기차 화재 위험 인식제고와 효과적인 수색구조 대응 체계구축을 주제로 수난대비기본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훈련 상황은 하동군 노량항 인근 운항하던 차도선 대도아일랜드호에서 원인 미상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 선장이 남

해경 상황실로 신고한 것을 가상으로, 다수 사상자 발생과 전기차 화재진화, 탈출 승객 해상수색까지 복합적인 상황을 가상하여 진행했다.

이번 수난대비기본훈련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사천해양경찰서가 합동 주관으로 실시했으며, 하동소방서, 하동군청 등 차도선 내 전기차 화재 발생에 따른 대응 방안 공유를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실시했다.

훈련 후에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함양을 위해 전기차 화재의 특성과 적절한 소화 방법, 일반화재와의 차이점 등을 전기차 진화전문업체의 교육하는 시간도 가졌다.

육현진 서장은 "최근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면서 차도선 내 전기차 운송도 증가하고 있어 수요의 증가로 화재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라며 "해양경찰도 전기차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주기적인 정보교환과 합동 훈련을 실시하여 안전한 바다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용준/기자

정준호 서울시의원, 서울시의원 연구단체 '서울둘레길연구회'둘레길 현장점검 성료!

첫 현장점검 통해 서울둘레길의 입체적 개선방안 모색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둘레길연구회'는 지난 20일, 첫 활동으로 '덕수궁둘레길-정동길-한양도성길-인왕산자락길-무악재하늘다리-안산자락길-홍제천'을 잇는 둘레길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서울둘레길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양세훈 한신대 대학원 초빙교수(숲해설가, 숲길등산지도사)와 함께 진행됐다.

연구단체 의원들은 오전 2시부터 덕수궁둘레길을 시작으로 한양도성길, 인왕산자락길, 무악재하늘다리, 안산자락길을 도보로 이동하며 둘레길의 시설물 상태, 안내판 설치 현황, 이용자들의 불편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했다.

인왕산과 안산은 서울의 대표적인 등산 코스와 둘레길 코스가 있는 산으로 많은 시민들이 찾는 곳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둘레길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단체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에 개선사항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서울둘레길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서울둘레길연구회는 서울시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로, 서울둘레길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현장점검에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서울둘레길 전문가 및 담당조사관도 함께 참여하여 둘레

길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연구단체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은 "이번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둘레길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울둘레길연구회는 현장 중심의 활동을 통해 서울둘레길의 입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 연구단체는 둘레길의 재정비 및 시민친화적이고, 편리성이 확보된 글로벌 명품 트레킹 코스 발굴 등을 위해 지난 7월 구성되어, 정준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서 15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최광수/기자





제17회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대한민국 대표축제

청송사과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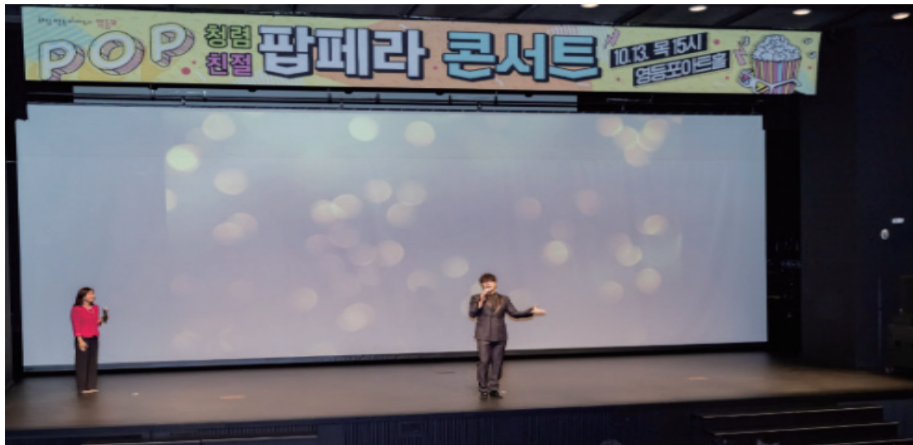
2023. 11. 1.(수) ~ 11. 5.(일)
청송읍 용전천 현비암 일원

청송사과 찬란한 금빛향연

주최 / 주관 청송군 / 청송군축제추진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경상북도, 청송군의회, 청송경찰서, 청송소방서, 청송교육지원청, 청송군관내농협, (사)청송사과협회, K-water 청송권지사, 한국수력원자력청송수발전소, 청송문화원 등

청렴과 힐링의 만남! 영등포구, 이색 '팝페라 청렴 콘서트' 개최

딱딱한 지식 전달 강의에서 벗어나 '토크'와 '문화공연'이 어우러진 이색 청렴 교육



영등포구가 24일 오후 2시 영등포아트홀에서 500여 명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공감대 형성을 위한 '팝페라 청렴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구는 공직자가 가져야 할 청렴의 가치와 의미를 일방적인 지식 전달 강의가 아니라 '청렴토크'와 '문화공연'이 결합된

감성 강의로 전달해 자칫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청렴'에 재미와 힐링을 더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작한 '팝페라 청렴 콘서트'는 청렴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고, 전 직원 연령을 아우르는 공연으로 큰 호응

을 얻었다.

'팝페라 청렴 콘서트'는 반부패 청렴 교육과 청렴토크, 공연으로 꾸며진다. 국민권익위원회 전문강사가 3년간 구 청렴도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직원들과 자유롭게 소통한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위한 '갑질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이어 최호권 구청장이 참여해 청렴과 건전한 조직문화에 대한 생각을 전달하고, 구 직원들이 가져야 할 '공직자의 자세' 의미를 되새기는 '청렴토크'가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청렴교육과 청렴토크 사이사이에 '청렴' 메시지를 전하는 팝페라 공연이 펼쳐지며 교육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린다. 유명 뮤지컬 곡이나 오페라의 아리아, 대중가요의 공연으로 '청렴'을 머리로 이해하기보다 가슴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구는 청렴의식 확산과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반부패 역량 자가진단, 온라인 청렴 서약서 작성, 청렴 도서 읽기, 갑질 자가진단 등 다양한 청렴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청렴은 공직자로서 기본 덕목이다. 이번 팝페라 청렴 콘서트를 통해 청렴이라는 가치를 되새기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주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직원들과 함께 소통하며 다양한 청렴 시책을 발굴해 영등포구 공직자가 청렴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박향신/기자

서울 중구 '제12회 서울충무로영화제, 27일 개막'

충무아트센터·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중구 일대서 총 36편의 영화 상영



서울 중구가 오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제12회 서울충무로영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구문화재단 충무아트센터와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주최·주관하고 서울시·서울 중구·한국영상자료원이 후원한다.

개막식은 김성경 아나운서의 사회로 오후 5시 충무아트센터 중극장에서 개최된다. 개막 영상은 충무로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인 '월스 어폰 어 타임 인 충무로'다. 뒤이어 무성영화인 '검사와 여선생'이 상영되고 최영준 변사의 공연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영화제에선 총 36편의 영화를 만날 수 있다. '접속', '봄날은 간다', '장화, 홍련' 등의 작품들을 충무아트센터와 CGV 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중구 일대에서 상영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cffs.kr)와 인스타그램(@cffs_official)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 19가 끝난 후 진행되는 만큼 '마을극장' 코너를 신설해 관내 곳곳으로 찾아간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10월 29일 오후 7시 남산골 한옥

마을에서 '작은 정원' △30일 오후 6시 봉래초에서 '말아' △31일 오후 18시 '걷기왕' △11월 1일 오후 1시 30분 유락종합사회복지관에서 '델타보이즈'를 상영한다. 주민들의 생활권으로 직접 찾아가 주민 곁에서 더 가까이 함께하는 영화제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영화제는 오는 11월 1일 오후 5시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에서 막을 내린다. 폐막식의 사회는 윤영미 아나운서가 맡았고 공로상 시상과 폐막 선언 이후 폐막작으로 영화 '배드 랜드(Bad Lands)'가 상영된다. 한국 최초로 상영되는 것이며 상영 전 하라다 마사토 감독의 무대인사가 예정돼 있어 폐막식에 열기를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대중성과 예술성을 아우르는 다양한 문화 축제 콘텐츠와 남산-명동-충무로 등 중구의 대표 관광 벨트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해 관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영화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성원/기자

성북구, 자원순환의 가치를 확산하는 '정릉1동 페스티벌' 열려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환경 보전을 위한 실천을 위해 자원순환의 가치를 확인하고 탄소중립 선언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친환경 축제

갈수록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환경 보전을 위한 실천이 절실한 가운데 서울 성북구 정릉1동에는 자원순환의 가치를 확산하고 탄소중립의 선언을 이끌어낸 정릉1동 페스티벌이 열려 눈길을 끌고 있다.

정릉1동 페스티벌은 지난 21일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숲숲어린이공원에서 정릉1동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날 수많은 주민이 참여해 어린이 놀이터와 푸른 나무들이 함께 어우러진 공원에서 보물찾기, 전통놀이, 친환경 식물심기, 풍선아트, 양말목 공예, 캐리커처 등 다양한 체험했으며, 오카리나 연주, 색소폰 합주, 버블쇼, 마술쇼,

크로스오버 등 다채로운 공연을 즐겼다. 행사장은 청명한 날씨 속에서 가을을 즐기는 가족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또한 이번 행사는 친환경과 탄소중립을 체험하고 소통하는 다양한 부스를 마련해 참가자들이 탄소중립을 다짐하고 선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더욱 의미 있는 축제가 됐다.

폐화분을 재활용한 공기정화 식물 심기와 폐자원을 활용한 양말목공예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법을 배우고 일상 속 탄소중립 생활을 선언하는 제로웨이스트 캠페인이 펼쳐지며 참가자들과 함께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하며 자원순환의 가치를 확

인하는 시간을 보냈다.

장성남 정릉1동 주민자치회장은 "정릉1동 페스티벌은 주민의 주도로 기후위기에 경각심을 갖고 자원순환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 및 추진됐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이번 행사가 정릉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어 지역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으며 이슬로 성북구청장은 "이번 정릉1동 페스티벌은 정릉1동 주민들이 하나 되어 즐기는 화합의 장인 동시에 우리 모두가 직면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을 찾아 나서는 뜻깊은 축제였다"라며 "이번 계기로 친환경 실천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



이 자원순환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강성원/기자

서울 서초구는 오는 28일 방배숲환경도서관에서 '깨알동지(깨닫고 알리는) 방배숲 책소풍'을 개최한다.

'방배숲 책소풍'은 가을을 맞이하여 서리풀공원의 아름다운 자연과 어우러져 책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도서관 내 그림책 원화 전시전, 북토크, 책 읽는 가족 시상식, 뮤지컬 공연, 마술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서초구, 방배숲환경도서관에서 책 소풍 즐겨요

야외 책 쉼터 공간 조성, 그림책 원화 전시전, 북토크, 책 읽는 가족 시상식, 뮤지컬 공연, 마술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도서관 내에는 '잠이 솔솔 핫초코', '어떻게 추는 거야?' 등 그림책 원화 전

시전이 마련된다. 또, 어린이 독서 체험 프로그램으로 ▲양선 작가와 함께하는

나만의 핫초코 카드 만들기 ▲뮤지컬 도슨트 '사사와 함께 춤을' ▲그림책 해

설 및 '리본으로 춤춰요' 등 놀이 체험이 진행된다.

이외에도,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방배숲 환경 이야기 북토크'가 열린다. 박임자 탐조책방 대표, 한재운 시민되다 대표, 정다운 보물팩토리 대표가 전하는 환경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마술사 윤지원의 신비한 마술공연 ▲서초구 다독(多讀) 가족에게 인증패 및 상장을 수여하는 책 읽는 가족 시상식 ▲이산화탄소 대마왕을 물리치고 지구를 구하는 환경 뮤지컬 '지구용사 푸름이' 등도 관람객들을 찾아간다.

특히, 옥상 '구름 들' 야외에는 '깨알동지 책 쉼터'가 조성되어, 가족, 친구, 연인들과 함께 책을 읽고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또한, 도서관 곳곳에서 환경퀴즈를 풀고 스탬프 도장을 받는 '방배숲 에코패스'도 진행된다.

본 행사는 자유롭게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단, 양선 작가와의 만남, 그림책 뮤지컬 도슨트, 어린이환경뮤지컬 '지구용사 푸름이', 환경이야기 북토크는 10월 16일 9시부터 방배숲환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한 사람만 참여 가능하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환경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흥수/기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보성벌교 갯벌

제19회 벌교꼬막축제

2023. 10. 27(금)~29(일) 벌교읍 천변일원

꼬막 맛 좀 볼래?




이천시청 이미연 팀장 딸 행정고시 최종합격 '경사'이신행嬢 2023 국가공무원 5급 합격



이천 양정여중고 졸업 증일동 이신행嬢 2023 국가공무원 5급 합격
이천시 증일동 이신행씨가 '2023 국가공무원 5급(일반행정 전국)시험'에 최종합격했다. 행정고시는 행정부 5급 공무원을 신임으로 뽑는 시험으로 현재 각각 입법부와 사법부가 실시하는 입법고등고시 및 법원행정고등고시와 함께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신행씨는 양정여중·양정여고·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3년 가까이 행정고시 준비에 매진해 왔다. 1년차에는 전문학원을 수강으로 하다가 2년차부터는 인터넷 강의 등 본인만의 공부법을 찾아가며 복습과 이해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시험을 준비했다.

공부하는 마음가짐과 성실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이신행씨는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끝날 것이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역량을 믿고 하루하루 정해진 목표를 꾸준히 달성해 나간 것이 합격에 큰 밑거름이 된 것 같다"라는 소감을 전하며 "앞으로 어느 부처를 가든 국민께 도움이 되는 공직자가 되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씨의 부모님은 두 분 모두 공직자로서의 모친(이천시청 이미연)은 자녀교육에 있어 자율성을 두고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키우도록 하였다며, 합격의 소식을 가족 친지, 이웃들과 특히 양정여고 동문들과 같이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범상/기자

금천구, 제1회 '도전! 금천장학퀴즈대회' 성료

중학교 2학년 108명 참여, 우승자 박희찬 학생에게 150만 원 장학금 지급



금천구는 (재)금천미래장학회에서 주관하는 제1회 '도전! 금천장학퀴즈대회'를 10월 21일 금나래문화체육센터에서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도전! 금천장학퀴즈대회'는 학생들의 지식과 재능을 뽐내는 자리다. 장학회에

서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개최했다. 6개 학교(동일중, 시흥중, 한울중, 난곡중, 안천중, 문성중)에서 108명이 참가했다.
퀴즈의 출제범위는 학교 교과과정 80%와 금천구 관련 문제 및 시사상식

20%로 했다. 1회전은 OX 문제, 2·3회전에는 단답식 문제로 진행됐으며, 각 회전 사이에는 학생들의 장기자랑 공연이 이어졌다.
퀴즈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1등부터 5등 학생에게는 각각 상금 150만 원(박희찬, 시흥중), 100만 원(장준영, 한울중), 70만 원(김성겸, 동일중), 50만 원(박채원, 한울중), 30만 원(인찬영, 동일중)이 지급됐다. 최후의 1인을 배출한 시흥중학교에는 100만 원의 학교발전 지원금이 주어질 예정이다.
박준식 이사장은 "학생들이 재능과 끼를 발산하며 학업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털어버리고, 의미 있는 학창 시절 추억을 만들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구에서도 학생들이 희망과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박황신/기자

평택시, 국제평화도시 (International Cities of Peace) 가입

'한미동맹 70주년 대축제'에서 '국제평화도시 평택시' 선포

평택시가 10월 7일 '국제평화도시(ICP, International Cities of Peace)'의 392번째 회원이 됐다.
국제평화도시시는 세계적인 평화 문화 구축을 위해 2009년 설립된 비정부기구(NGO)로, 2017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서 특별협의지위를 승인 받았다. 국제평화도시 회원들은 지역 사회에 평화문화를 정착시키는 활동과 회원국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평화 정책 및 문화를 발전시키는 활동을 펼치게 된다.
평택시의 가입으로, 국제평화도시 회원 도시는 6개 대륙, 72개국에 걸쳐 총 392개가 됐다.
이에 평택시는 10월 7일 개최한 '한미동맹 70주년 대축제'에서 국제평화도시 가입을 선포했다.
이날 행사에서 국제평화도시 프레드릭 아먼트(J. Frederick Arment) 의장은 "평택시의 가입은 안보, 풍요로운 공존, 안정과 정의를 가져다준 한미동맹의 70주년을 기념하며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다"라며



"평택의 지역사회가 진정한 평화문화 조성에 헌신하고 있다고 인정받았음을 축하하리다"라고 영상으로 축하를 전했다.
정장선 시장은 "70년간의 한미동맹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국가 안보와 국제평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며 평택시에

거주하는 시민, 주한미군 등 외국인이 함께 공존하는 국제평화도시 평택으로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의 국제평화도시 가입은 국내에서 네 번째로, 포천시·부산광역시·광역시 등이 국제평화도시 회원 도시로 활동하고 있다.

양시현/기자

2023 오곡나루축제, 장바구니 나눔 캠페인 실시

여주시는 오곡나루축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10월 20일~21일 양일간 축제장 일원에서 장바구니 나눔 캠페인 실시했다.
축제장을 방문한 손님들은 농산물이나 물건들을 사고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하기 마련인데 일회용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 사용으로 자연스러운 탄소중립 생활 실천에 동참을 유도하고 인식개선의 일환으로 진행했다.
20일에는 분리배출 LED 홍보차량으로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요령, 탄소중립 실천 등 영상을 이용한 홍보도 함께 진행했으며, 장바구니 사용 외에도 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등 녹색생활을 실천하고 항목별 적립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녹



색생활 실천분야) 및 전기·상수도·도시가스를 절약하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제도를 알리며 탄소중립 생활실천의 의미

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여주시는 앞으로도 장바구니 나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김범상/기자



"올가을 북한산 어때?"...은평구, '북한산성 단풍 어뎌?' 개최

단풍요가, 플로깅, 버스킹 공연 등 풍성한 행사 마련

청경은평
북한산성 Autumn 단풍 어뎌?
10월28일(토)~29일(일) 북한산성 대서문길 일대 13시~17시까지
행사내용: 즐리마켓 | 파머컬처마켓 | 체험부스 | 무대 버스킹
이벤트: SNS 댓글 공유이벤트, 명수증 이벤트
사전신청프로그램: 북한산성 플로깅, 북한산성 공룡을 찾아라, 북한산성 단풍요가 프로그램

서울 은평구는 오는 28~29일 북한산성 입구(대서문길 상권)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북한산성 단풍 어뎌(Autumn)?'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은평구와 서울신용보증재단 은평지점이 공동으로 마련한 행사다. 북한산 단풍이 절정인 이번 주말 28~29일 양일간 북한산성 입구(대서문길 상권)서 열린다.
'북한산성 입구' 상권은 은평을 대표하는 자연환경인 북한산 아래에 자리해 음식점 및 카페, 아웃도어 매장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풍부한 자연환경을 비롯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갖춰 내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은 곳으로, 특히 가을에는 최고의 단풍 명소로 불린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외 방문객들이 북한산 곳곳을 즐길 수 있도록, 상권 전역에서 다양한 체험과 판매 행사가 열린다. 행사는 ▲'즐리마켓' ▲'파머컬처마켓' ▲'거리공연' ▲'북한산성 단풍요가' ▲'북한산성 공룡을 찾아라' ▲'북한산성 플로깅' 등으로 다양하게 준비했다. 단풍요가, 공룡을 찾아라, 플로깅은 사전 참가 신청이 필요한 행사로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서 미리 신청해 놓아야 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은 가족이 화려한 단풍과 더불어 가을 분위기를 만끽하길 바란다"며 "은평의 대표 자연환경인 북한산과 함께 주변 상권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유동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



도민이 행복한 희망 경북! 경상북도의회가 만들어 갑니다.



영양 들어다보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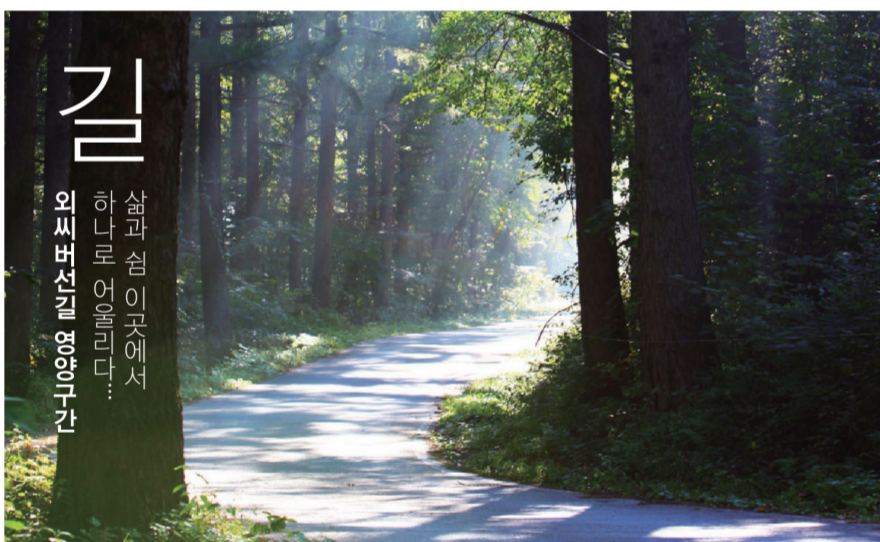
영양군
YEONGYANG-GUN
www.yyg.go.kr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ZOOM

들어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아온 **영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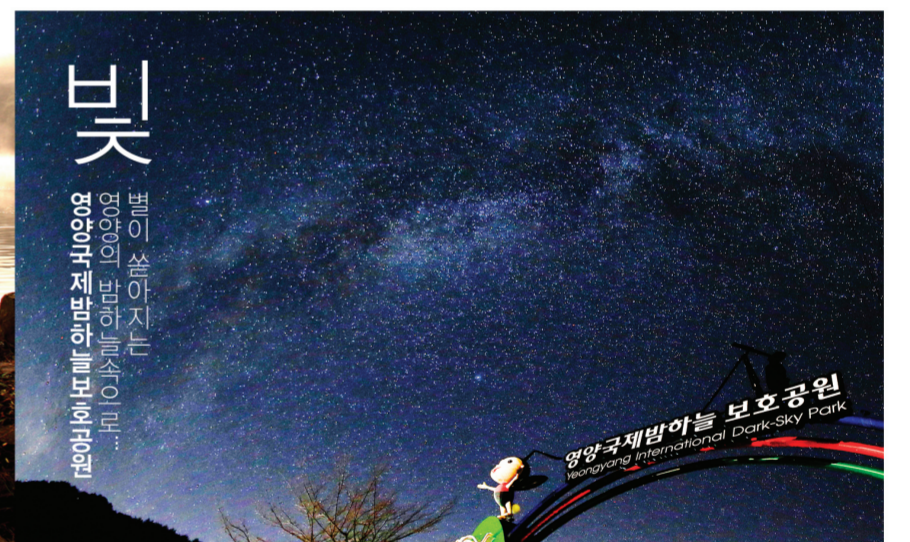
길

살과 숨이 곳곳에서
아니면 언제라도
의외롭게 영접하는



물

영양의 평온하고
은밀한 아름다움 느끼기
영양 대표 관광지



빛

별이 쏟아지는
영양의 밤하늘을 즐기세요...
영양 대표 관광지



얼

시공간의 대가
영양 서석지



맛

사백년째 이어온
반가의 레시피...
장계향의 음식디미방



심

자연과 벗하던 선비의
기품이 깃들다...
영양 영조정



숲

한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
조지훈과 주실마을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_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침벽공원, 측백수림, 외씨버선길
- 영양의 역사_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_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생화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양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